

할렐루야, 주의 백성과 나라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세상의 억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하며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 깊이 경청하라! 세계 선교를 상상하라!

####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로잔 글로벌 분석

로잔운동의 지도부가 발표한 글로벌 공청회(global listening calls) 분석 보고서를 읽고 난 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경청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경청하고 (재)상상해야 변혁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깊은 경청과 (재)상상의 방법과 특징은 무엇인가? 삼십 년 전, 존 스토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 '이중 경청'의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그는 경청하고 (재)상상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다각적인 변화를 이루는 기술적인 행위로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읽는 것, 배우는 것, 아는 것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배우고 실천해 왔다. 탄다냐(Tandanya) 국제 원주민 문화 기관에서 '야바라(Yabarra)-빛 속에서 꿈꾸기'라고 불리는 예술 축제에 손님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은 "당신은 우드리(Wodli)에 앞으로 초청되었고 당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의 길을 보고 들으십시오"라고 노래했다.

Rose Ungunmerr)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샘을 두드리기"에 대해 말한다. 그녀가 속한 부족의 이름은 응강이쿠롱쿠르(Ngangikurungkurr)인데, 이는 '깊은 물소리'를 의미한다. 이 부족의 구성원들은 내면에서 '깊은 샘물'이 솟아오를 때까지 귀 기울이는 자세를 취한다.

완전히 구현된 종류의 경청은 자신의 편견, 전제, 예상을 제쳐두고 상대를 향한 존중과 공경을 요구한다. 이해(understanding)를 얻으려면 상대방의 '밑에서 서 있어야(stand under)' 한다. 그러므로 경청은 겸손, 취약성, 인내의 행위이다.

이 글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언어, 육체, 짐목의 세 가지 중요한 수단을 다루는 방법을 통하여,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로 경청과 (재)상상하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초대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함께 듣고 응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깨지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Missio Dei)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단지 지식이 아닌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를 찾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이해하기와 함께 완전히 구현된다. 2021년 올해의 시니어 호주인(Senior Australian)인 미리암 로즈 웅건머(Miriam-

고대 중국인들은 다섯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의 결합이 '경청'의 총체적인 구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배웠다. 'Ting/청'(듣다, 聽)이라는 단어의 중국어 어원은 듣기에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 듣는 귀, 보는 눈, 생각하는 사고, 느끼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주의를 위한 한 획으로 구성되는 건설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언어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개념에 익숙하다. 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규범적이고 권위가 있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기독교의 전통은 우리의 상상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 오늘 복음이 공략할 상대는 무관심의 문화이다

복음만이 제공하는 고차원적 의미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책 이름에 교회 이탈(dechurching)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탈기독교시대 교회(The Great Dechurching)는 놀랄 정도로 낙관적인 어조로 쓰인 책이다. 저자인 짐 데이비스와 마이클 그레이엄이 갖고 있는 소망은 지난 25년 동안 교회를 떠난 4천만 명 중 대다수(51%)가 언제가는 돌아올 거라는 낙관론에서 비롯한다. 그 51퍼센트는 나름 참작할 만한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일상적" 이탈자로 볼 수 있다.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22퍼센트는 새로운 공동체로 이사했기 때문에 떠났고, 16퍼센트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리고 15퍼센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석이라는 습관"을 벗어난 경우이다. 결국 종합할 때, 한 때 신앙에 헌신했던 복음주의 교인의 53퍼센트가 평범한 이유로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 하지만 무심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새로운 복음주의를 꿈꾸게 하는 소망인 동시에 과거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평생 자유주의 주류 교회의 교인이었던 딘 켈리는 1973년에 발간한 Why Conservative Churches Are Growing(왜 보수 교회는 성장하는가)에서 보수 교회가 사람들에게 "고차원적(large-scale)"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교회보다 더 많이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수준의 의미는 삶을 인도하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도록 한다. 보수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고통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적 진리를 선포했다는 말이다.

(9면으로 계속)

#### 다문화적 지혜

다양한 전통에 나타난 고대의 지혜는 경청과 (재)상상의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보물을 제공한다. 호주 원주민 공동체들은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초긴급!!!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발의안 상정을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통과 되면? 1. 안전: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샤워실/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함 2. 공평: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3. 학부보 권리 보호: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California의 악법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 550,000개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 70,000개 이상의 싸인 한인 서명 마감: 2024년 4월 13일 서명용지 및 설명서 보급장소 OC: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사우스베이: 토렌스 조은교회 LA: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LA 동부: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서명에 관한 안내나 서명용지를 받기 원하시면 서명운동본부(310-995-3936, 323-578-7933)나 TVNEXT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서명운동본부 고문: 송정명, 김영길, 한기형, 최학량, 최홍주, 민종기, 김인식 (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한기홍 공동대회장: 강준민, 고승희, 고창형, 고태형, 고현중, 구봉주, 국윤권, 권혁빈,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종규, 김준식, 김지훈, 김태형, 김한요, 김호용, 남창식, 남성수, 노창수, 민경업, 박규성, 박성규, 박성근, 박용덕, 박은성, 박현성, 방상용, 백정우, 손창민, 송병주, 신동철, 신승훈, 신원규, 안 환, 오명찬, 우영화, 윤대혁, 이 서, 이영선, 이정현, 이종용, 임성진, 주혁로, 지용덕, 진유철, 최성광, 최 혁, 최형규 각지역 대표: 최영봉, 박재만, 이필성, 오기현, 박선호, 김우준, 전지승, 류수림, 김형길 지도위원: 남가주지역 모든 담임목사 자문위원: 김태오, 새라 김 (TVNEXT 대표, 408-309-4084) 실행위원장: 강순영 (310-995-3936), 심상은 (714-722-4805) 사무총장: 강태광 (323-578-7933)



발행인 칼럼

누군가는 나서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어제는 삼일절 105주년 기념일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선진들의 아픔을 지금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105년 전 그날, 민족 대표 33인이 고조(苦楚)를 무릅쓰고 나서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吾等(오등)은 兹(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來)하도다. ---" 이 선언서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절절함은 차고 넘친다. 삼일절 노래도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기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 곳 곳마다 3000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

뮤지컬 영화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에는 시해진 "명성황후"의 궁녀로 등장하는 "설희"라는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은 일본으로 가서 독립군 정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가 위험한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외친다.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는 제대로 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독립군 정보원으로 맹활약하다 장렬한 죽음을 맞는다. 그녀가 영화에서 부른 "그대를 향한 나의 꿈"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이 어둡고 깊은 밤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이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눈부신 한 떨기 꽃이 피듯이/ 난 다시 꿈을 꾸어요/그대 향한 나의 꿈" 그리고 보니 3월 1일은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눈부신 꽃이 피어나는 봄의 문(門)이다. 누군가 봄의 꿈을 함께 꾸고 나섰기에 그 놀라운 봄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역사는 무명(無名)이든 아니든 누군가 용감하게 그 역사의 무대(舞臺)로 나선 이들로 만들어져 왔다. 역사에는 만약( 만약)이 없다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서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날 저문 들판에서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나서지 않았다면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은 그날 배고픔을 무엇으로 해결했을까? 30대 중반의 마르틴 루터가 머뭇머뭇 거리느라 암흑의 중세를 깨트리며 과감히 나서지 않았다면 종교 개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향해 나서지 않았다면 한국 기독교는 지금쯤 어땠을까?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지도자로 나서지 않았다면 공산주의와 맞선 한국 전쟁은 어떤 결론이 났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가난을 없애겠다는 분이 역사의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지표(指標)를 그려왔을까? 누군가 비행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 세상은 오늘날 어떤 세상일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이며 앞으로 영원을 어디서 보내겠는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소설 "큰 바위 얼굴"에서 주인공 어니스트는 마을 저편에 얼굴 모양을 한 큰 바위를 보고 자랐다. 어니스트는 큰 바위와 같은 큰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일생을 보낸다. 그런 인물이 나타나지 않아 실망을 하고 있는 터에 한 사람이 외친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야 말로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역사는 그 마지막까지 상황에 따라 각 분야에서 주저 없이 나서주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 누군가가 "나"이면 어떨까.

신학교 입학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젊을 때 바로 신학교에 진학하면 얻게 되는 상당한 이점들

신학교(신학대학원) 첫 수업을 들었을 때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결혼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스물두 살이었다. 신학교 수업은 내 수준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성경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할지도 가늠할 수 없었다. 당신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럼 지금 내가 왜 과거의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들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걸까? 이유는 명확하다. 그럼에도,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사역을 추구했다. 목회에 필요한 신학 교육을 위해서 기존의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서구 기독교에서 상대적으로 드물다. 물론 좀 더 인생에 노련한 사람이 되어서 신학교를 가면 분명히 이점이 있다. 교인들의 삶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로부터 존경받을 이유도 더 갖춰져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젊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에 진학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다.

1. 장수

어린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두 번째 직업이나 노년의 부름을 받아 간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다. 사역에서 금흔식은 커녕 은흔식을 맞는 사역자를 거의 찾기 힘든 시대에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사역한다면, 그런 사역자의 신실함은 눈에 뵈기 수 밖에 없다.

일찍 사역을 시작할수록 성장하고 성숙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아무리 최고의 신학교라고 해도 사역에 관한 전부를 배울 수는 없다. 목회자의 진짜 교육은 사역지에서 이루어진다. 실전에 더 일찍 투입되는 일꾼인 만큼, 더 많은 경험과 성숙을 기초로 영혼을 목양할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 에너지와 열정

젊은이들은 젊을 때 낭비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걸 나름 재치있는 과장이지만, 젊은이일수록 더 큰 에너지와



아망을 갖는 건 분명하다. 그럼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열정에 넘쳐 과격해지는 유혹에 직면한다. 젊은 남자들이 신학교 시절에 쌓은 신학이 소위 말하는 "새장에 갇힌 단계"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열심(딤후 2:14)을 목표로 삼되, 그렇다고 지나치면 안 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헌신하되, 그렇다고 선동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젊은이가 젊음과 열정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그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다른 직업과 달리 젊음의 에너지를 사역에 쏟을 때, 교회에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심방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라. 빠를수록 좋다.

3. 집중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눅 9:62). 힘든 사역을 하다 보면 채 일년이 되지도 않아서 모든 걸 벗어버리고 싶은 경우를 여러 번 만난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단지 마구잡이로 사역에 투신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마음대로 사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 때때로 사역에서 한 발 떨어지는 게 지혜로운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하게 만난 장애 또는 부

양의 책임이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전적 헌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 더불어서 가족 간의 불화, 특히 부부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에 집중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 당신에게 사역이 부르심이 아니라 단지 직업이고 개인적인 결정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안 된다. 목사 안수는 교회를 통해서 추수할 밭에서 일할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다.

그렇다면 일찍 시작한 신학교가 어려움을 만난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집중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신학을 일찍 시작할수록, 아무리 사역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 곳에 한눈팔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애초에 목사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사역이 어려워질 때 얼마든지 다른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세상 직업에서 받는 돈이 사역에서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을 때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교회 밖에서 다른 교육을 받거나 기술을 익히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일찍부터 오로지 목회에만 집중하면 분명한 유익이 있다. 한눈팔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는 동시에 참고 견디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 E-mail: ny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2, July 4, and Nov 25.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가톨릭서점 The Christian Book Center |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독사까운 | (323) 737-7699 |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 Order Online 30% LOW PRICE | in2printing.com |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 텍사스: 3471952-5442, (347) 858-6063 |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네 주인이 누구냐? 왕의 재정 부흥회 THE KING'S FINANCES REVIVAL | 2024.3.11(월)~15(금) | 7:30PM | 김미진 간사 |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 강사: 김미진 간사(NCMN 대표) | 사업실패로 50억 빚을 지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야기 빛을 청산하고 재정의 돌파를 이루어낸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이야기 | 이웃과 전 세계로 나눔의 삶을 살게 된 김미진 간사의 비결이 오늘 당신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세상과 구별된), 바로 당신입니다. |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 | 1.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 2.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 | 3. 속부의 삶을 청산하고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라 | 4. 심고 거두는 배가의 삶을 훈련하라 |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1000 www.gracemi.com



### 깊이 경청하라! 세계 선교를 상상하라!

(1면에서 계속)

육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말씀을 읽는 고대의 방법인 신성한 독서(Lectio divina)는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 깊은 친교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대한 사색적인 접근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에 응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팬데믹의 격동,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인종 차별, 기후 변화, 그리고 경제 침체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은 폭풍에 비유할 수 있다(막 4:35-41; 눅 8:23-25).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바람과 거친 물살 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질문할 수 있다.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혹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동료, 협력 단체, 선교 협력 기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등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도자인 우리는 듣기보다는 더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귀를 열고 듣는 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취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며,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토착민 선교, 상황화 선교는 우리 자신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의 땅에서 듣고 상상하는 깊은 감각으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경청에 있어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은 내면의 자기 대화이다. 혼잣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자라게 한다. 뒤에서 하는 혼잣말은 우리를 자기 부인이나 강박의 유혹에 빠뜨릴 수도, 혹은 생명을 주는 길로 끌어줄 수도 있다. 우리 내면의 소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될 때, 우리는 이름을 부르고, 분별하며,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응답할 수 있다.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육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의 육체는 신성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 안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객체가 아니고, 하나의 사람이자 하나의 주체이다. 마치 화가에게 캔버스, 시인에게 단어처럼, 육체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수단이기도 하다. 육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의 진심 어린 통곡을 들으셨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알아 보셨다(눅 5:18-20; 17:11-19).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있던 제자들의 육체의 언어(body language)를 들으셨고,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보셨으며,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알아 보셨다(막 26:36-46). 또한, 예수님은 적대하는 자들의 육체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들 마음속의 문제를 알아보셨다(눅 5:17-26; 7:36-40).

오늘날,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질 줄 모르고 일하며 육체적인 피로, 탈진을 자주 경험한다. 만약 그들이 신체의 중요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많은 탈진(burnout) 현상들을 초기 단계에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역 사역 혹은 세계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인간이 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그들과 연결됨으로써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를 통해 깊은 의식이 표면으로 나오게 되고 실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될 수 있다.

육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창조 전체로도 확장될 수 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경뿐만이 아니라 나무, 꽃, 구름, 별에도 기록하신다고 주장했다. 토착민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각각의 영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물 전체를 위한 것임에 대해 많은 것을 일러 준다. 복음주의의 전통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는 중요한 계명에 큰 강조를 두는 것이 맞지만(마 28:18-20),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극장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우리에게

계 설교하도록 둘 수도 있지 않을까? 자연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에 대해 새로운 언어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

침묵

많은 그리스도인이 침묵을 편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들의 모임은 보통 소리, 말,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침묵은 매우 중요한 언어이며 사랑의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침묵이 꼭 움직임이 없거나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 혹은 새로운 돌파구의 탄생 전 매우 의미심장한 멈춤의 시간일 수 있다. 사무엘상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듣는 데 네 번이나 걸렸던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삼상 3:1-10). 구원자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은, 오랜 멈춤 후에 하나님과의 교감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눅 2:26; 37-38).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심문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시며, 침묵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궁금했었을 것이다(요 8:3-11). 강력한 두 번의 멈춤(6절과 8절)은 고발자들이 죄로 몰든 자신들의 삶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자신들의 손가락을 거두도록 하는 침묵의 순간이 된다.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모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며, 극복해 나가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친교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처럼 그분의 계시를 알아볼 수 있는가? 때때로 가장 좋은 응답은 이야기, 시, 혹은 그림을 통해 모양을 부여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재)상상력이 솟아올라 신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침묵의 공간일지 모른다.

일상속에서 성경의 날개가 높이 날기 위해서는 공간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회화나 건축물의 여백은 내용을 비우지

않고, 오히려 가득 채운다. 침묵의 공간은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찾고 해석할 수 있도록 표면에서 그들을 향해 흐른다. 시에서 발생하는 멈춤은 우리를 친숙한 세계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형태도,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실도 가질 수 없다. 내적인 침묵은 히브리어 성경의 시집에서 발견되는 '셀라'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칠십언어 성서는 이 단어를 구분점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은 멈추다, 가능하다, 듣다를 가리키는 묵상의 멈춤, 중단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주고 받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영향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의 신성함,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기 위한 멈춤은 우리가 메시지를 씹고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침묵의 케노시스(kenosis)상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된 비어 있고 부서진 열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거하는 곳이 된다(엡 4:24).

결론

로잔 운동의 세계적인 모임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중심적(polycentric)이고 다성적(polyvocal)인 사명 안에서 경청하고, 현명하게 분별하며, 그리고 창의적으로 (재)상상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자.

거룩한 경청과 (재)상상의 기술을 발달시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하나 됨을 추구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2024년 인천에서 열릴 제4차 로잔대회가 육체와 침묵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청하고 (재)상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여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열린 자세를 취할 때,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고,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되는데, 희생은 본래 '증인'(witness)을 의미하는 '순교자'(martyr)라는 단어와 종종 연관된다. 영원하시고 살아 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희생적인 사랑을 담아낼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양극화된 세상 속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힘을 볼 수 있게 된다.

by Xiaoli Yang, TGC

### 시론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시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단어가 인공지능(A.I.)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영역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이전에 불가능했던 작업들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을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가짜 동영상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2018년 4월에 조던 필(Jordan Peele) 감독이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대통령을 등장시켜 만든 동영상을 통해서 가짜라도 얼마든지 진짜같이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실감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컴퓨터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시대는 점점 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가짜를 버리기 보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애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선거철을 맞이하면서 상대의 인격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들이 진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이미지로 제작되어 정치판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인들의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진짜같은 가짜가 판을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내용을 건강하게 지키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면서 지혜롭고 빠르게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봅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정보영역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발을 맞추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서서히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동적인 영역이지만 그런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로봇의 출현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위험스러운 선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한 판단력과 가치기준을 가진 인류가 바르지 못한 정보이지만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가짜 정보들을 생산해 냅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으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인류에게 창조와 타락사건에 버금가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좌절과 배신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인간의 타락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A.I.를 두렵게 합니다. 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안에서 진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hankschoi@gmail.com

##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렙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저희 살렙 벨엘 교회는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 제일 노회 (First Presbytery)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렙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지난 28 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기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 한국어 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자
-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자
-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 연령: 43세 - 55세 (만 나이)

제출 서류:

-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3 page 이하
-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10 page 이하
- 목사 안수증명서
- 출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최근설교영상 (2년 이내) - YouTube Link 또는 영상 파일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들 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 살렙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 구독 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24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고 김명혁 목사님의 삶과 죽음

지난 2월18일 주일 늦은 밤에 서울에서 카톡이 들어왔다. “목사님! 김명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러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달려가신 길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셨지만 남은 우리들은 안타깝고 슬픈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춘천의 어느 교회에 주일 설교하러 가시던 중에 자동차 사고로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가셨다. 고인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 삼성 장례원에 도착

하니 이틀째 일정이 계속되고 있었다. 고인께서는 강변교회를 설립, 목회하시고 원로목사로, 합동신학교 교장을 역임, 명예교수로, 합신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40년 전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를 창설하여 교파를 초월한 복음주의 노선 구축을 이룬 훌륭한 연합 사역들을 이끌어 오셨다. 은퇴 후 20년은 전국 방방곡곡 어렵고 가난한 교회들을 자비량 방문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온정을 쏟으시며 살아오셨다. 소천하시는 날도 주일 설교차 나셨

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다. 김 목사의 생애를 요약한다면, 김관주 목사의 아들로 동경에서 태어났고, 신의주 제2교회에서 고인의 부친은 한경직 목사와 동역을 하셨다. 부친께서 평양 서문밖 교회 담임목사로 재임할 때 공산당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탄광 노동 감옥에 갇히셨고 결국국은 순교를 하셨다. 11살이었던 아들은 부친과 의논 끝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홀로 북한을 탈출하여 서울의 이모 집에서 청소년기를 지냈다. 서울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성복 목사의 집회에 심취하여 은혜를 체험한 후 좋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고교시절에는 한국의 예레미야로 불렸던 김치선 목사에게서 “2만 8천개 마을마다 우물을 파라!”는 비전에 힘을 얻어 왕십리에 나가 노방 전도하여 아이들과 어른들 1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서울대학에 입학하여 송봉호, 김상복, 이형기 등과 함께 애국운동을 벌였고 평생을 복음의 동지로 지내왔다. 미국에서 웨이스, 웨스트민스터, 예일대학, 아퀴나스 신학원에서 학위를 얻고 총신대 신학원의 교회사 교수로 재임 중에 박윤선, 신복윤, 박형용, 윤영탁과 함께 합동신학교를

설립하셨다. 필자는 총신 신학원의 학생과 스승으로 처음 만났지만, 영안교회와 강변교회를 함께 개척하면서 가까이 섬길 수 있게 된지가 46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승이 남겨주신 신앙적인 인품과 가르침만이 남았고, 다정하신 모습은 더 이상 뵈을 수가 없게 되었다. 비록 몸은 떠나셨지만 스승이 남기고 간 발자취가 너무 선명하고 굵기에 결코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일사각오의 신앙 - 고인은 어린 나이에 월남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을 담대하게 사셨다.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을 모르는 분이셨다. 총신 교수 시절에 정보부에 잡혀가셨다. 주일에 대학생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것은 신앙 침해라는 대정부 항의의 글을 게재한 것이 요인이었다. 물리적 수사는 없었지만 강도 높은 문책 이후에 석방되었다. 그는 잡아올 때처럼 갈 때에도 집에 데려다 줘야 하지 않는가? 해서 검은 지프차를 타고 귀가하기도 했다. 아프카니스탄에 선교 갔는데 어느 선교부에서 현지 학생들의 책갈피를 준비해서 신고 왔지만 탈레반들이 통과를 허가하지 않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목사님은 홀로 절조장을

넘어가다가 체포되었다. 담대하게 너희 자녀들을 돌겠다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합당하냐? 대장을 불러오라고 호통을 치고 결국은 설득해서 그들의 호송을 받으며 선물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한다. 철저한 주일성수 - 강변교회 시절에 교인들이 그룹으로 유럽관광을 갔다 왔다. 문제는 주일에 귀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 문제였다. 주일날 예배도 빼먹고 비행하는 것에 대한 따끔한 지적으로 3개월 동안 성가대, 교사, 집사직의 직무정직 근신 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 후에 교회가 주일성수를 더욱 힘썼는데 그 때 배운 어린 학생들이 이번 장례식에 가보니 장로들로 세움을 받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다. 복음 증거를 위한 삶 - 유럽을 거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공항에 탑승수속 중에 가방을 도난당했다. 패스포트를 미국 비자도 함께 사라졌다. 한국 영사관의 임시 패스포트를 받고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서 영사관에 갔다.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문이 닫혔고 경비원만 있었다고 한다. 경비원은 월요일에 오라고 했지만 김 목사님은 ‘나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영사에게 당

장 연락을 하라’고 강조하는 바람에 연락을 받은 영사가 달려왔다고 한다. 영사는 ‘당신은 누구냐?’고 묻자... ‘나는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복음 전하는 목사’라고 대답을 했더니 시편 100편을 암송해 보라고 시편을 했는데 평소 암송하는 말씀이라 쉽게 암송을 했더니 영사는 ‘틀렸다’ 그것은 23편 말씀이지 100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에 목사님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 줄 줄 암송하면서 이것이 23편이라고 주장하자 확인해 보자고 해서... 보여줬더니 영사가 틀렸고 김 목사님 맞는 바람에 영사는 그 자리에서 비자를 찍어 보냈다고 한다. 존경하는 목사님! 후학들에게 남기고 가신 신앙의 이정표가 너무 뚜렷해서 길 잃을 염려가 없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순교자 부친의 뒤를 잇고, 최후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품에 안겼던 박윤선 목사님의 뒤를 따라 목사님께서도 주일 아침 복음 증거를 위해 달려가시다 생애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쳤던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가슴에 언젠가는 남겨진 사람들도 스승들의 뒤를 따라 안식의 나라에서 뵈을 때까지 존경을 고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jykim47@gmail.com

# 푸/른/초/장

이영진 목사  
(KAPC 동남부노회 부노회장)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은 끝이나 종말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평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흔히 한 편의 연극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극 무대에 올라갈 때는 사명을 받아 수행하는 때요, 무대에서 자신의 배역을 다하고 내려올 때는 인생의 여정에서는 죽음이나 은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물러나는가, 죽음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됩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다 말씀하는데 이것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며 율법을 몽학선생(초등교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

고 주장합니다. 이에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한 프랜시스 쉐 목사는 『지옥은 없다?』는 책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지옥은 있으며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만 죄를 미워하시고 보우하신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

지 않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 갈수 없다고 선언하셨 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보냄을 받은 예수 님께서는 죄 많은 세상을 대신 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 울러 이 사건은 다음에 설명드릴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역사를 두고 만약이란 가정이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 겠습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었

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대언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했던 모세였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항상 모세가 보였으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눈에 보이는 살아 있는 우상이 되었을 겁니다. 모세가 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 울러 이 사건은 다음에 설명드릴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역사를 두고 만약이란 가정이 무의미하다고 하지만, ‘만약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 겠습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었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 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어진, 정말 말 많고 원망 많고 불평이 입에 항상 붙어있는 사람들의 지도자 배역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 다하자 무대 뒤로 조용히 내려 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배역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일 할 때는 열심히, 사라질 때는 무대 뒤로 조용히’와 같은 자세와 결단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지금 까지 왕성하게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과 그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며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진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물러갈 때를 알고 물러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나 여만 한’ 한다.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식’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서 교만은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 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신 34:5)

##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1-12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요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감당하고 수행한 사명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의미를 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 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 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신 34:10-12) 40년간 광야 속에서 지도자의 사명을 잘 수행한 모세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이를 목전에 두고 죽게 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 무대 위에서 내려간다는 것의 의미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의 의미는

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갈 3:24,25) 창 15:6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즉 자랑할 데가 어디 나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범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27,28)고 했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고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한 구원을 말했습니다. 둘째, 모세의 죽음은 공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람 뱀의 저서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그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지옥 형벌에 떨어뜨릴 수 있느냐”

가 모두 죽고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 부정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선동하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정탐 기간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여 출애굽 1세대인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불순 중한 대가였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만, 불평은 지도자 모세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뜨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겠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을 겁니다.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세를 살아있는 우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으며 뒤에는 바로의 강력한 병기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가운데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바람이 불어 바다에 길이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였고 예뵤 땅에서 길이 험하다 불평불만 하다가 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자마 다 살게 하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40일 만에 나타나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출 34:30) 모세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

모세를 숭배했을 겁니다. 이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본을 쓰시는 작가이시자 총감독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연출자 성령님. 무대에서 예수님이 말으신 배역은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하고 예수님만 돋보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인공이시는데도 그 연극의 무대를 사사롭게 주름잡지 않으셨습니다. 각본이 자 작가이며 감독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등장하실 자리에 등장 하였고, 잠시 무대 뒤로 물러가셔야 할 때 물러가셨습니다. 무대 뒤로 물러가셨다고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무대와 관객은 오직 주인공의 등장만 기대해야 합니다. 나머지 엑스트라와 배역은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신이 무대 뒤로 가야 할 시점이 되자 아무 말 없이 물러갔습니다. 물러갈 때 아쉬움이 없었습니까? 회한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아 하나님께 한 번 더 간청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순종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과 철저한 순종 그리고 들어가고 빠질 때를 확실하게 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을 감당하되 퇴장할 때는 모세처럼 말없이 무대 뒤로 물러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lee9211@gmail.com



영토전쟁, 신앙전쟁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유언을 들어보면, 그 말들이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것을 본다.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이야기를 생략한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은 한결같이 '하나님 제이주의, 오직 하나님'에 집중된 것을 본다. 일평생 사랑하고 섬긴 그 하나님, 그분 한분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만복의 근원됨을 말하는 것이다. 가까운 어르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유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애들아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교회 빠지지 마라! 주의 종을 잘 섬겨라!" 그것 외에 다른 말이 없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때, 꽤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단순하고 심각하게 하나님만 강조했을까? 아마도, 평생의 삶을 통해 깨닫고 안 것이 이것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 마음 빼가지 않고 온전히 승리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몸으로 체험하며 배웠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땅에서의 삶을 설명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인생을 살고 나니, 그것이 아님을 배웠던 것이다. 마치, 여호수아가 「영

받은 순종의 결과였다.

순종과 은혜

이처럼 순종을 통해 귀한 열매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불같은 축복의 순종을 잘 드리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함의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동기와 의지, 열심히 저들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러한 에너지(?)는 모두 영적인 것들이다. 밤의 힘만 믿고서, 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영적 자국의 중심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바로, 하나님의 땅극하신 은혜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110세 파란만장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구구절절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His Story)를 언제나 말한다. 그의 믿음의 조상들과 다윗, 바울 등 모든 신앙의 위인들의 유언의 중심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다. 결코, 자기자랑이 없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강조한다. 왜 그런가? 참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보게 되는 데, 그 모든 순종을 가능

기독교의 역사, 영적선택

기독교의 역사는 선택의 역사이다. 선택에 따라 한 사람 개인의 일생(一生)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주변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본다.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보라. 미국만큼 모든 게 갖춰진 데가 없다. 시골 어디를 가도 호텔이나 모든 생활여건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그 바탕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청교도 조상들과 그들의 믿음과 순종,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다.

아주 오래전 유럽에서 배가 각기 다른 목적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가 있었고 북 아메리카로 오는 배가 있었다. 남아메리카로 가는 배들은 황금을 찾기위해 가는 배들이었다. 그들은 황금을 찾았다. 그러나 지금 저들의 삶의 결론은 피폐하기 짝이 없다. 마약전쟁의 소문이 많고, 그냥 북미의 선교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북미로의 목숨 건 탈출을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북미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1984년도에 LA 울

사이에 적당한 것은 없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회색은 불신앙이다. 사람들은 적당한 것 없는 지를 질문한다. 배경이 혼합주의 경향이 다. 영적으로 섞는 것은 무엇 이든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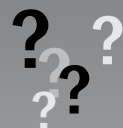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 선택의 분별력이 결여된 것을 본다. 유명한 신부의 강의를 듣고 은혜받았다고 자랑한다. 즉문 즉답을 하는 유명한 스님 설법을 듣고 은혜가 된다고 들어보라고 전도(?)를 한다. 그러다가 또 어느 때에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라고 난리난다. 뒤죽박죽이다. 온전히 하나님 선택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결여된 결과이다.

뜻을 정하여, 선택과 결단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선택과 결단의 열매이다. 성실함이 바탕이 된다. 어떤 이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한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성실한 사랑이다. 한결같은 사랑이다. 사랑에 빠질 때만, 가슴이 뜨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며칠 후면 3.1운동 만세 사건이 일어난 3.1절입니다. 3.1절이 일어난 배경과 우리 해외의 기독교인들이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로마터에서 권 장로가

3.1절 운동

**A:** 지난날의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민족사의 어려운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위기를 극복하는 용기와 저력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05년 일본의 천황은 이등박문을 우리나라에 보내 굴욕적인 조약을 강요적으로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나라에 통관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종황제와 대신들은 물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총과 칼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나라를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말과 글을 빼앗겼습니다. 남자는 대동아 전쟁에 끌려 갔습니다.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자기 나라 왕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일본은 갖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1월 2일 일본인의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던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독살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고종황제의 국상을 이룰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종로 탑골공원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앞으로 뛰어나가 품속에서 독립선언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낭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이 한목소리로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덕수궁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3.1 운동 당시 참가자가 220만 명, 죽은 사람이 7561명, 부상자 15,961명 투옥된 자 469,408명 소각된 예배당 47동이 임시정부에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3.1운동 만세 사건은 우리 한 민족이 살아있음과 생명보다 소중한 독립에의 열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은 중국, 인도, 이집트등 세계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약소 민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3.1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중국 상하이에 임시 정부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3.1운동 이후로 하나님은 26년 후에 드디어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일본이 망하고 1945년 8월 15일에 조국 광복의 날이 오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통 속에서 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결단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가나안은 잠시 잘 못하면,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곳인 줄 알고, 영적 긴장감 속에서 매일 매일을 살 것을 여호수아가 유언하며 말한 것이다. 매일 매일을 결단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임을 염려한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짐을 본다. 성경과 세상의 가르침이 교묘하게 섞여져 나오는 것을 본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전회기와 인터넷 문화이다. 쉽게 떠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매일 매순간 선택과

든 것에서 그런 영향이 드러난다.

어떻게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 약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일, 감사와 은혜로 매일 매일이 기쁨 실패할 것임을 염려한 것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산해진미를 거부하고도 영적력을 얻었듯이, 사자 굴에 들어갈 어인이 찢힌 줄을 알고서도 하루에 세 번씩 기도의 무릎을 꿇었듯이, 제대로 말씀 앞에 순종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음을 본다.

davidnj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Worship & Education 4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혼합과 혼돈, 선택과 결단, 순종과 은혜-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토전쟁'에는 승리했지만, 비교불가로 진정한 승리를 결판짓는 「신앙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손들에게 당부한 것을 보면 더욱 이해가 된다.

신앙과 선택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순종과 은혜를 아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말씀앞에서 끊임없는 결단과 선택, 그 결과들이다. 결단과 선택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하며 요단강에 발을 들였을 때, 예리고성을 13바퀴 뱅뱅 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다. 그러나 야간의 범죄함과 같은 불순종의 일들이 나타났을 때, 저들 공동체는 큰 어려움과 실패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호수아 당시의 사건 뿐 아니라, 성경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같은 순종의 삶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맺어갔음을 본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결코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순종도 모리아산을 향해 몸을 움직여 나아감으로 주어진 일도, 저단강이 갈라지는 일도, 저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다. 자신의 발을 요단강에 내어 디딤으로 되어졌다. 가나안 족속들이 절로 항복하며 이스라엘에게 나아온 것이 아니었다. 칼을 들고 순종하며 열심히 전쟁을 행함으로

하게 만들고, 순종 이후의 축복이 교만의 조건이 되지 않을 가장 확실한 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다.

하늘로 머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음은 삶의 승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 땅은 우리 힘과 뜻으로 얻은 땅이 아니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함을 뛰어넘어 이루신 역사의 현장을 늘 기억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땅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 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진실될 때, 이 땅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은 더욱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과 그의 일하심, 그 결과로 자신이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항상 고백하며 잊지 않는다.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두르고 사는 존재이다. 짐승이 땅에 머리를 숙이고 사는 존재라면,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아가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잊어도 좋은 것은 안 잊고, 잊어도 좋을 것은 꼭 기억하는 죄의 습관을 가지고 어리석게 살아간다.

림픽을 TV로 본 기억이 있다. 올림픽 식전 행사에 미국의 초창기 역사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자기 집을 지었다.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할까? 그때 우리 담임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몇 달을 이야기 했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왜 미국을 축복하는 지 아느냐? 그러하면서 교회를 사랑해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잘 섬겨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설교와 말씀을 하였던 기억이 선명하다.

영적인 승리를 위한 신앙의 선택,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섬길 줄 아는 저들의 선택에 복을 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앞에서 영적인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교회, 예배를 빼놓고서, 하나님의 축복도 결코 생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본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본이 무너져 있으면, 결코 축복의 가정과 가문,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혼합주의, 분별력

신앙의 기본인 예배도 선택을 요구한다.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정해야 한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다. 믿음과 불신앙

거울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항상 사랑할 수 있을까? 계속적인 선택과 결단의 과정을 지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30년 전쟁을 치룬 후에, 땅의 분배를 마쳤다. 이제 살기만 하면 된다. 정착 생활의 기본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거듭 거듭 몸부림치며 하는 말이 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도 나처럼 삼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하필, 오늘, 나와 내 집인가? 참된 신앙,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계속적인 결단과 선택으로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텐트를 폼다 접었다를 반복하며 40년 세월과 30년 전쟁의 시기를 지나왔다. 여성들의 예를 들면 제대로 메이크업도 못한 채, 살기위해 급하게 지나온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가? 광야 노숙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착민 문화를 가꾸어 온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이스라엘 총각들 눈에는 모두가 미스 가나안정도도 보였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결국 신앙도 버리고 저들의 문화를 쫓아갈 것이고, 필연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떠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매일 매순간 선택과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쓰임을 받다

한국은 총선이라는 선거철에 접어들었다. 선거에 출마할 선수들을 뽑느라 연일 설왕설래가 요란하고 뼈대대는 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내가 왜 선수자격이 없느냐며 졸을 이탈하는 풍경도 적잖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을 당했다며 언론플레이를 벌이기도 한다. 의대생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도 점입가경이다. 그동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결에서 9전9패를 정부가 당했다는 기사도 나오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만만치가 않다.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더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팽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쓰임의 여부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느냐 또는 쓰여졌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후에 토사구팽이나 밥그릇 싸움을 따져보면 옳고 그름이 명확해

질 것이다. 성경에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허락함을 받은 자의 성향이나 인품, 자격은 나와 있지 않다. 세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거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는 말이 있다. 둘 다 긴 시간 혹은 긴 세월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필요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거나 끈을 달아서라도 쓰겠다는 안으로 굽음이 중요하다. 세상에서는 이를 의리라고도 한다. 의리(義理)하면 당연히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거나 나라를 택하실 때 언제나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나, 모세를 불러 사용하신 것이나 이스라엘을 택해 자기 백성을 삼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셨다. 택해달라거나 불러달라는 요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거나 부르신 것이다.

이때 그 주체가 세상적이라면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어도 무방하다. 이익을 달거나 일인시위를 벌일 수도 없다. 약속 또는 계약은 깨기 위해 성립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인 까닭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할 때 그 서약을 보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하얗게 희도록 함께 하겠다며 찰떡같이 손가락을 걸지만 갈라서는 쌍이 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런 서약 또는 약속은 땅(흙덩이)에 새긴 물거품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시다. 일방적으로 약속도 하시고 언약도 맺으시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언약을 절대로 여기지 않으신다. 참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천명(天命)을 하신 후 그들의 상황이나 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책임을 다하셨다. 물론 징계도 하시고 진노도 발하셨다.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죽이기도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무거운 발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셨다. 죄를 짓고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결과가 사망이기에 그 사망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구원자)가 되게 하여 세상에 보내셨고 그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책임을 다하셨다. “나는 성공하는 것보다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존 맥아더나 “눅이 슬어 버려지기보다 쓰임을 받아 닦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말한 토저 목사의 신앙을 깊이 음미할 가치가 곧 쓰임이다. 쓰임은 곧 알아춤과 연관이 된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쓸모가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당에서도 공천할 것이고 설사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이 된다 해도 그는 당선되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거침없이 뱉어내는 인사가 있는 듯하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주객이 전도된 말이 나온

다. 의사의 필요는 환자와 환자의 필요는 의사다. 그런데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병이 의사의 허락을 받고 발생하는가? 아무리 세상이 말세로 치달는다 해도 사람에게에는 도(道)가 있다. 가장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였다면 말을 조심해서 하고 그 마음 또한 사람답아야 한다. 구시화지문(口是禍之門)이요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며 폐구심장설(開口深藏舌) 하면 안신처저우(安身處處守) -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라는 옛말을 기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쓰기로 택하심을 절대 변하지 않으시나 세상은 자기 한바의 여부에 따라 쓰여지기도 버려지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는 것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예루살렘 멸망때 생긴 까만 그을음... 제2성전시대 용기 발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이 제2성전시대(기원전 516년에서 서기 70년) 물품으로 추정되는 석회암 용기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관광부 서울사무소가 27일 밝혔다.

이 용기는 이스라엘 유물 관리국이 다윗 성 발굴 작업 중에 찾았다고 한다. 가로, 세로 30cm 크기, 9개의 구획으로 나뉜 해당 용기는 제2성전시대 말기 고대 상점으로 추정되던 장소의 내부에서 나왔다. 석회암을 깎아 만든 것으로 옆면에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탄 흔적이 남아있다.

용기의 정확한 사용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고대 상점에서 발견된 것을 미루어보아 판매용 물품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 용기가 발견된 순례 길은 실로암 분수에서 산을 연결하며 당시 도시의 주요 도로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석회암 용기 외에도 각종 도자기와 유리그릇, 측량기 등 각종 도구와 동전 등도 함께 발견됐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도시이자, 순례자의 중심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매우 활발한 상업 활동의 장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고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의 발굴 작업에서는 수천 개의 석회암 그릇 조각들이 발굴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대 유대인이 정결 법을 엄격히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조유나 이스라엘 정부관광부 서울사무소 소장은 “성서와 일상을 연결하는 고고학 발굴”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종전이 이뤄져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전사자 3만1000명... 새로운 반격 계획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2년간 자국 군인 3만1000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한 것

으로 평가되는 지난해 6월 대반격을 언급하며 “새로운 반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키이우에서 올해 안보·경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 전사자 수는 30만명이나 15만명이 아닌 3만1000명”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기만 집단이 주장하는 숫자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 전사자 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방부는 모두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병력 손실 규모를 기밀로 다루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전사자 수는 러시아뿐 아니라 서방국 추산치와도 차이가 크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과학·국제관계센터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의 사망·실종·중상자 규모를 12만명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지난 2년간 총 41만700명의 러시아군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제거’가 사살을 뜻하는 것인지, 병력에 손실을 입혔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사실상 규정했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한 우크라이나 전사자의 13배가 넘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병력 손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희생을 치렀다”며 “우크라이나가 패배할지,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 여부는 여러분(국민)과 서방의 협력자들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푸틴과의 평화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는 전쟁을 끝내지 않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협상 강요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대반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우리의 계획이 작전 개시 전에 크렘린궁 탁자 위에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롭고 분명한 반격 계획이 있지만 세부 사항을 말할 수 없다. 정보 유출에 대비해 여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군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 중앙정보국(CIA)은 미사일 공격 표적, 러시아군 동향 정보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며 첩보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 “이·하마스 휴전·인질 협상 기본 윤곽 합의”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인질석방 협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CNN에 출연해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협상의 기본 윤곽에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한 하마스와의 간접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며칠 안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표단은 지난주 프랑스 파리 협상에서 6주간의 휴전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의 대가로 하마스가 약 40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기본 방침에 대해 합의했다.

이스라엘 대표단은 이르면 26일 카타르에 도착해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하마스가 기본안에 동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타르 협상에선 하마스의 인질 석방 의사를 확인하고 양측의 이견을 좁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CBS방송에서 “우리는 인질 협상을 원한다”면서 “하마스가 망상적 주장을 접고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모두가 원하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의 미친 요구가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협상 대표인 바셀 나임은 “휴전 협상이 진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CNN에 말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두고 “그에게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日후쿠시마 오염수 28일 4차 방류 개시...7800톤 계획”

도쿄전력이 28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식 명칭 ‘처리수’) 4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4차 해양 방류는 일본의 2023년도 오염수 처리 계획의 마지막 방류다. 26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오는 28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4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1~3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4차 방류때도 17일간 오염수 약 7800톤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4차 방류는 2023 회계연도의 마지막 방류로, 이번 방류가 끝나면 총 방류량은 약 3만 1200톤이 된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

터 같은 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로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올해와 내년 1년에 걸쳐 7차례의 추가 방류를 앞두고 있다. 앞서 도쿄전력은 2024년도 처리 계획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4600톤을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오염수 방류량은 이전과 같이 7800톤이다.

이 기간에 방류될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 총량은 연간 상한치인 22조Bq(베크렐)을 밑도는 14조Bq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그동안 원전 주변 해역 모니터링에서 방사성 물질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혀왔다.

“멕시코시티 수도꼭지 마른다” ... 기후변화 재앙일까

인구 2200만명이 거주하는 멕시코시티가 최근 심각한 물 부족으로 위기에 처했다. 지난천 개발 등 외부요인도 있으나 낮은 강수량, 기후 변화 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은 “거의 22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멕시코시티가 혼란스러운 도시 개발, 기반시설 누수 등 여러 도시 문제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뷰에 응한 알레한드로 고메즈씨는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도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끔 한두 시간 동안 물이 나오지만 양동이 몇 개를 채울 만큼의 작은 물방울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더운 날씨는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멕시코시티는 지난 몇 년간 강수량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 건기는 과거에 비해 더욱 길어졌고, 평균 기온은 계속 높아졌다. 이 도시의 입지 자체가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멕시코 시티는 해발 약 7300피트의 고도가 높은 호수 바닥에 위치했다. 점토가 풍부한 토양 위에 지어진 이 도시는 지진에 취약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의 대기 과학자인 크리스티안 도밍게즈 사르미엔토는 “몇 주 동안 몇몇 지역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고, 아직 비가 시작되기까지는 4개월이나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시티가 몇 달 안에 수도꼭지가 마르는 ‘데이 제로’(Day Zero)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학교 입학을 서둘러야...

(2면에서 계속)

4. 유연성

젊을수록 오로지 공부에만 신경쓰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젊을수록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최고의 신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 일만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이 항상 온라인 교육보다 우수하다고 나는 믿는다. 이런 식의 이동이 모든 사역 후보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교수, 급우, 지역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생활이 가능한, 보다 완전한 신학교 경험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젊은 가족일수록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 신학생의 가족이 기존의 삶에서 시작하는 대신 새로운 환경에서 온 가족이 사역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도 있

다. 젊기에 적응과 변화는 좀 더 쉽고, 온 가족이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통일된 경험은 소중하게 남을 것이다. 나는 반복되는 이사에도 잘 적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회복력에 몇 번이나 놀라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역사회와 특정 장소에 매이기 마련이다. 결과적으

로 한번 내린 뿌리를 뽑기는 어렵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특권이다. 왜 굳이 늦게 시작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기쁨이다. 그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축복이다. 경건한 교수들로부터 멘토를 받고 동료 학생들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젊은 세대가 일어나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다. 왜 하루라도 빨리 사역에 투신하지 않는가? 젊은이들이여, 무엇을 기다리는가? 신학교 교육을 받는 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by Keith A. Evans, TGC



#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86. 강영각(1897-1946)

강영각(康永瑛)은 1897년 3월 7일에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 취흥리에서 강명화의 다섯 아들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이현에 살던 38세의 강명화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기선 차이나를 타고 1905년 5월 29일에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이 강명화가 강영각의 아버지일 수 있으나 도착한 아들은 영각이 아니라 경순이었다. 하와이로 이주한 강영각은 영어로 Young-Gak Kang으로 통했다.

신문인 한인 소년 The Young Korean을 펴내 1년에 2차 출판했을 뿐만 아니라 한인 학생 동문, 한인 대학생 클럽 그리고 태극 클럽을 조직하였다.



1923년 7월에 와하아 한인감리교회가 2,000달러로 예배당을 헌당했다. 그달 12일에 헌당식이 있었다. 일동 찬미에 이어 임준호의 기도 후 송지순의 취지 설명 직후 강영각이 음악 순서를 맡았다. 이후 황사용의 연설, 찬미대의 특송, 현 순의 연설, 김포사의 축사하고 폐회했다. 그동안 재정상 문제로 착수하지 못하였는데 그해 9월에 미국 남감리교회 남학생기숙사가 건축되었다. 이에 현 순, 안원규, 이지성과 함께 강영각의 주선이 컸다. 다음 달에 엠잇 청년회 임원 선출이 있었을 때 강영각은 포모나 대학을 졸업한 후 하와이로 이주하여 처음으로 엠잇 청년회 임원을 맡았다. 그는 통신국을 맡았고, 그 외 임원에는 회장 정월남 등이 있었다.

에 연합운동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원명 회장 중심으로 단산시보가 간행되었고, 강영각은 현 순 등과 함께 이사로 관여했고, 그동안 주필로 재직하던 영 코리아를 차병수에게 넘기고, 호황서양 영문 매일보인 애더버타이스(Advertise)로 자리를 옮겼다.

1925년 8월에 호황 한인감리교회 주일학당을 증진하기로 하고 매주 금요일에 목사 사택에서 모여서 가르칠 성경 공과를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당장은 정월라였고, 교사는 강영각을 위시하여 박에스더, 문인희, 임준호, 현희득, 문포라, 정만용이었다.

#### 와하아와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와하아와는 꾸준히 발전하여 미국 육군 스킵트 바랙스와 연계된 산업이 발전했고, 파인애플 농장이 중요한 우대책이었다. 그래서 와하아와는 거대한 파인애플 농장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한인이 호황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여 한인감리교회도 발전했다. 강영각은 전도사로서 청년 회회를 담당하여 1928년에 부임한 안창호의 회회를 보조했다. 강영각이 1928년에 하와이 필시티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을 때 안창호 목사에게 이말리를 소개하여 피아노를 연주하여 예배를 도왔다. 1929년 9월에 강영각은 한인 청년 학생을 와하아와 한인감리교회에 초청하여 '오아후 농촌한인학생



최초 예배당 앞에서 안창호 목사(중앙) 옆에 선 강영각(Remembering Our Korean Brethren)

대회'를 열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일조했다. 총 90명의 중고등학생이 모였는데 와하아와뿐만 아니라 와이아루아, 스킵트, 구니아 그리고 에와에서도 참가했고, 이 모임에서 김피터가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영각은 주일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1930년에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성경반이 사택에서 있었다. 그는 성가대에 관여하지 않았다. 학생 성가대는 18명으로 조직되었는데 성가대 지휘자 정에스더 부인의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연습했고, 어른 성가대는 강영욱 지휘자의 인도로 목요일 저녁에 연습했다.

1930년에 10대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외에 엠잇 청년회가 있었고, 정에스더, 박플로라, 김에니, 김엘라, 이살로메, 김헤이즐, 천영순, 최플로렌스, 김그레디스, 김릴리안, 위제이슨, 김히람, 윌리엄스, 장찰리, 김 존, 김영남, 김호성, 김제임스, 김제이름, 김도

마스, 임도마스, 김해리 그리고 김히람이 가담했다. 1930년대에 엠잇 청년회가 자주 주일 아침 예배를 주장했는데 이때 강영각이 설교하였다. 그가 '인간 창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하로 설교했을 때 유메리가 사회를 보았고, 김에니가 성경을 봉독하였다. 때때로 청년이 예배를 인도하였다. 김해리의 인도로 박플로라가 성경봉독을 한 후 김릴리가 '신년 결심'이라는 제하로 설교하였을 때 강영각이 영어가 어눌한 노인들을 위하여 통역하였으며, 이도로서와 김이비다가 헌금위원이 되어 회중이 헌금을 하는 동안에 김에니가 특송을 하였다. 강영각이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었다. 1930년 12월에 10대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가 성탄축하회를 준비했다. 김발남이 요셉으로, 김해성이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임도마스와 김릴리스와 임조셉은 세 명의 동방박사로 분장했고, 차제시는 크리스마스 촛불을 담당했다.

다른 한편 강영각은 민족 운동에도 관여했다. 1931년에 국민보의 영문 주필로 재직하였으며, 그해 흥사단에 입단하여 단우 번호 261번으로 민족 운동에 적극 활동하였다. 이듬해 4월에 윤봉길 의사의 홍공공원 투탄의거에 고무된 와하아와 지방의 한인회와 함께 임시정부 와하아와 후원회를 조직하고, 독립자금을 마련하였으며, 1933년에 와하아와 상동 한인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삼일절 행사에서 '민주의 문제'로 영어 연설을 하였다.

1933년에 와하아와 교회 안창호 목사가 휴가로 잠시 귀국한 후 강영각이 대리 주일 예배를 주장하였다. 그는 선선히로 불리었으나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해 7월에 임두화 목사가 주일 아침 예배에서 설교하였고, 한국 소식도 전했다. 안 목사는 그해 8월에 도미했다. 다음달인 9월에 강영각은 와하아와 한인감리교회에서 이곳에 거주하던 최정호의 딸 메리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신한민보는 이들 신혼부부를 두고 하와이 청년계에 이상적인 가정을 성립했다고 보도하여 그가 청년 목회의 사표임을 알 수 있다.

1934년에 강영각이 주선하여 청년 전도대를 조직하였다. 호황 일곱 교회 청년 남녀로 조직한 이 복음단은 그해 6월에 벌써 네 교회의 초청으로 주일 예배를 주장하여 많은 환결과 좋은 호감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제창하여 그곳 두 교회 청년을 합동하여 청년연합회를 조직하여 배달민족의 발전과 행복을 도모하였는데 이듬해 회원이 100명에 달했을 때 회장은 문덕원이었다.

#### 호황

강영각이 호황으로 이주했다. 1940년 4월에 모국 기근 구제회 발기회가 조직되었을 때 회장 양유찬 아래 한문 서기 도진호 등과 함께 강영각은 영문

서기로 선정되었다. 그해 12월에 호황 대학생회 임원 피선이 있었을 때 강영각은 통신 서기로 선임되었다. 1944년 2월에 강영각이 와하아와 한인감리교회를 방문하여 '새 결심과 새 사업'이라는 제하로 설교하여 일반 교인이 감동을 많이 받은 후 폐회 전에 교회 자립과 경상비를 작성하였는데 작정한 사람과 금액은 아래와 같았다. 로선 여사가 100달러, 유진석이 60달러, 한경선과 노인국과 선우혁과 임성우가 각각 50달러, 김해리와 현도명이 각각 30달러, 문순철과 이경희와 박신애와 임창진과 이현일과 김예준과 이애경과 이백용과 위인산과 안창호가 각각 25달러, 김광호와 정병화와 박인규와 정엘니스와 김병술과 최순범과 이일탁과 김학조와 최병권이 각각 20달러, 손성범과 진원철과 유진간과 이



오아후 농촌 한인학생대회(Remembering Our Korean Brethren)

필모와 박유근과 오필선과 선우철과 박대원과 박조이와 이봉수가 각각 15달러, 조순업과 박도현과 김신호와 김순연과 위태근과 황요근과 김화안과 함홍식과 김상원과 전신호와 김필은과 김경현 부인과 양기준과 위제삼과 이모세와 이화수와 김효심과 황용덕과 최태민과 임복수와 한필립과 장금환과 박용섭과 임영택과 송세환과 이금성이 각각 10달러, 김필니사가 6달러, 박영하와 권봉학과 조숙자와 흥영철과 최재순과 이복덕과 강인덕과 이애비와 고신선과 김예윤과 이덕이와 김백원과 전승환과 전복만과 성매리와 최승률과 김정규와 변승환과 정도리스가 각각 6달러, 변익보와 박경오가 각 3달러, 한영후가 2달러 그리고 최미환이 1달러였다.

1941년 7월에 호황에서 자본금 5,000달러를 모금하여 한인연합인쇄소가 문을 열었는데 사장 안원규 아래 강영각은 주무로 활동했다. 그해 12월에 동지회와 국민회가 연합으로 연합한민보를 발행하면서 강영각이 주필 외에도 이사회 서기까지 맡았다. 1944년에 강영각은 흥사단 제12만 하와이 인장이 되었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국방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독립급 수봉위원회 훈련부에서 활동했다.

1946년 2월 4일에 강영각이 향년 49세에 심장병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의 조국 독립 운동을 기려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1997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새벽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사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sgc.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7</p>	<p><b>남가주든단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6:00(월-금) Tel: (714) 481-2779, www.dendanchurch.com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평일 새벽예배: 오후 7:00 영어권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돌며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 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 오전 5:30(매일) Tel: (310) 9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pc.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세계선교교회</b>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저녁 금요일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310) 388-1927, www.wmcc.org / worldmissionchc9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b>살비치 사랑교회</b> (Seal Beach Sp-F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참구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살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p>	<p><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b>엘피스지역원</b>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가정사역자 3. 영성사역자 4. 네트워킹사역 Tel: (626) 894-6214,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 오후 7:30 만해세례기도: 365일 24시간 온론 Tel: (714) 446-6202, www.grocei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화: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g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영인/청년): 오전 11:45 송-고등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464-9259, www.socalsamsungch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일예배: 오후 8:00(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평강교회</b> 담임목사: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성경을 읽는(영):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새벽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수-일예배: 오후 8:00(분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운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9장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추론한 의무들 (2)

4)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면, 소중히 여기고 더욱 향상시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용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은 복음처럼 주어지지만, 우리가 향상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작게 받았든, 크게 받았든 이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이 은사의 목적은 우리로 부지런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예배드릴 때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이 너무 적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소멸하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사를 밝히는 불과 같다. 그 불은 여호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불이 언제나 꺼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부지런히 살펴야 했다(레 9:24; 6:12,13). 그러므로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령이 준 은사의 불'에 재를 불어내고 연료를 더해서 '꺼뜨리지 않도록' 경고했다(딤후 1:6).

\* 그러면 은사를 보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나 조건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고 관찰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시 16:7).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본성의 사악함과 영적인 일에 대한 어둠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시 19:12; 139:23-24).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필요가 요구하는 한,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빌 4:6). 만일 사람들이 삶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바라본다면, 기도 또한 형식적인 표현들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에 대해 조사하고, 우리의 상태와 부족함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 또한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서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계속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의 방언과 같이 화려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상태와 행동과 유혹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멸해 버릴 껍데기만 남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일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 자신의 입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소중하게 여길 뿐 아니라, 강화되는 간구들과 논쟁들로 가득 찬 기도를 하게 된다.

(2)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것도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며, 우리의 본성과 행동과 길은 무엇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지를 모두 보여주며 기도의 내용과 방법까지 잘 알려주기 때문이다(시 19:7-9). 우리는 성경 안에 계시된 내용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롬 8:26,27).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하며,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해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읽은 것을 자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바꾼다면,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은 더욱 확고해지고, 그들의 마음은 실질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무에 대한 깊은 목상이 모두 기도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올바르게 목상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운 은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할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속성을 드러내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는 기도는 찾아볼 수 없

다.  
\*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것은 우리 안에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되는 경외감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레 10:3, 히 12:28).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장 담대히 나아가도록 요구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과 10장 19-22절이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이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영광과 위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은 우리로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방패이며,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잠 18:10).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자주 목상하는 것은 올바르게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입으로 표현할 것들을 얻게 되며, 우리가 간구하고 찬양할 때 필요한 은혜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수난과 중보를 목상하는 것 역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수난과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다(히 4:15,16; 10:19-22).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우리를 간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도의 은혜와 은사 그 자체를 증가시키고, 강화시키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의해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복음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은 즉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중보 사역을 의지한다. 실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들과 명령들과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더라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위격과 중보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하여

지난 연말로 십 년 동안 있었던 교회를 떠났다. 사실 풀타임으로 학교 일을 하면서 틈틈이 교회 사역을 하느라 원하는 만큼 시간을 못 내는 것이 늘 마음 한편에는 걸렸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생각한 시간이 아닌 때에 갑자기 사역을 내려놓게 되니 서운한 구석도 있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떠났다. 교회 사역을 그만둔 지 한 달 후에 이번에는 학교로부터 불합격을 마지막으로 퇴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통보였다. 많은 신학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문을 닫은 학교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리 학교도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중 기존의 프로그램 몇 개를 닫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다. 내가 담당하는 프로그램도 닫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닫는 과정이 일년 반에서 이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미리 책임자를 퇴임시키는 조급은 황당한 경우가 온 것이다. "당신이 일을 잘 못 해서가 아니라 재정적 이유인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매끄럽게 포장된 말이 전혀 수긍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루어진 것임을 믿고 일단은 감사하기로 했다. 내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머리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 마음으로도 동의가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뛰던 일들을 갑자기 다 내려놓게 하심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킨 일,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동안 일단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관심있는 분야를 연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연구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인 노인사역에 대한 책을 들고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도서관을 찾았다. 마침 차를 마시러 만난 어느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장년, 노년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고 첫 날 강의를 부탁하셨다. 다른 교회에서 노년기 세미나를 몇 번 인도하느라 준비한 적은 있었지만, 최근에 노인사역에 대한 새로운 책을 읽고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준비를 했다. 강의를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매세지들이 담겨있었다. 참 자랑하기도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갑작스런 은퇴 아닌 은퇴를 하게 된 나에게 세미나 준비를 통해 격려와 도전을 하신 것이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되새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년기를 맞으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정체성과 삶의 목적, 그리고 미래에 관한 것이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정체성과 연관된 것이다. 즉 평생 하던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상실감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이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교수로 지낸 24년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는 교수직을 그만두게 될 때 나는 정체성의 상실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나의 주된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면 나의 직업이 없어진다 해도 나의 나 됨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또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그분을 위해 최선의 것을 다 드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지니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나이에 연결된 제약을 뛰어넘어 평생 학습자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움을 나누며 살 수 있다. 며칠 전 만난 어느 권사님은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부른 서유석씨의 누님이었다. 권사님은 동생 서유석씨가 기독교인으로서 많이 나누고 사셨다고 했다. 궁금해서 서유석씨의 간증을 들어보니 "너 늙어 봤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불렀는데 그 가사가 무척 재미있었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로 끝나는 노래는 노년기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세상은 젊음을 노래하지만 어차피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목적을 지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라성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3) 651-9235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다민족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회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진도: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73) 821-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b>벨렐교회</b>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현):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현):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현):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현):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영 아 베: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 City, MD 21042</p>	<p><b>보스톤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베: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b>센터빌인간장로교회(PCA)</b>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 679-7576 www.koreancoc.org 25454 Gum Spring Road, VA 20152</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je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Greenwood St. Anch, AK 99518</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성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636-6675 www.laccnc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앨메교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모처럼 만에 한국에서 LA에 방문하러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LA 다운타운에 있는 어스카페(Urth Cafe)에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어스카페에 들어가 주문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서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앞줄에서 있는 한 중년의 여성분이 우리를 보면서 “한국분 이시네요?”라고 묻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여행 차림에 한 손에는 미국 관광 안내 책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여행 오셨나 보네요?”라고

대답하며 “어떻게 이 어스카페까지 찾아오셨네요?”라고 되물어 보자, “한국에서 유명한 유기농 카페로 알려져 있고, 이 주변이 LA의 명소로 소문난 예술 지구(아트 디스트릭트)라 벽화들을 구경하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관광책자를 펼쳐서 자신이 찾는 벽화들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 벽화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주변을 돌아다니다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물으셔서 보니까 벽화들 중에 하나가 내 눈에 익숙한 벽화였습니다. “제가 벽화들 가운데 하나는 분명하게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문득 속으로 “이 여성분이 고생스럽게 여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LA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하며 점심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음료를 무엇으로 드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어스카페에 오면 꼭 마셔야 할 것으로 관광 책자에서 추천한 음료가 ‘녹차라떼’라며 녹차라떼를 마시겠다고 합니다. 녹차라떼와 르우벤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세 명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즐겨하시는 분이셨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자동차 렌트를 하지 못하여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있다는 말에 고생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후에 제가 LA 다운타운 관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 벽화를 보러 가던 중 어제 주일에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

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곧바로 내가 말로만 설교하는 목사인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고생하며 다니는 한 여행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도전의 말씀을 증거 해 놓고 정작 자신이 실천할 상황에서 외면한다면 나는 진실된 목사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앞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나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서 ‘내 이웃’을 찾기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아닌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I don't want to get involved”(관여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던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나의 공훈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supbois@gmail.com



소망중창단 단원들이 아르모니아 싱어즈 단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중창단 창단 연주회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중창단(단장 데보라 이, 지휘 김성봉)은 지난 20일(토) 옐로우가나안장로교회(담임 김인철 목사)에서 창단 기념 및 제1회 연주회를 가졌다. 소망중창단은 소망소사이어티 주제곡인 ‘소망의 노래(주혜미 작사·작곡/ 최영진 편곡)’로 창단

기념 연주회를 시작했다. 소망중창단은 ‘믿음의 고백’, ‘추억과 그리움’,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총 9곡의 노래를 선보였다. 이날 우정 출연으로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스페셜 무대와 제갈 소망 피아니스트의 특별 피아노 연주도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평균 나이 70세로 구성

된 소망 중창단은 ‘인생’과 ‘가족’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중창단 단원 16명 각각의 삶의 여정을 담은 사진들을 공유했다. 이날 연주회에서 김인철 목사는 “시니어를 위한 사역과 아프리카 차드 생명 살리기 사역에 이어서 중창단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로 구한다”며 “시니어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된 소망중창단 단원들이 평소 고인이 좋아하는 찬양곡과 노래를 장례식에서 불러주는 조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혼자되신 한인들과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인 어르신들을 찾아가 노래로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 소망중창단원들이 더욱 건강한 가운데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소망 소사이어티와 소망중창단 조가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는 (562)977-4580 또는 somang@somangociety.org로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오늘 복음이 공략할 ...

(1면에서 계속)

그러나 기독교가 주장하는 초자연주의를 부끄럽게 생각한 주류 교회는 진짜 위로를 제공하는 핵심 교리(부활 등)를 일반적인 도덕주의와 정의에 대한 권고로 대체했다. 켈리에 따르면 이것은 운명적인 변화였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도덕적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의 메시지와 주변 문화의 목소리를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하품과 함께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켈리가 발견한 사실은 단순하다. 종교 공동체의 회복력은 그 공동체 외부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우주적 목적”에 따라 살도록 성도를 준비시키는 만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켈리의 통찰력과 탈기독교시대 교회를 결합할 때, 지금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과연 교인들에게 교회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차원적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별생각 없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경우, 그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할 대안이 되는 진리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거부하지 않는다. 단지 냉담하고 무관심할 뿐이다.

우리 시대 영적 질병: 무관심

우체 아니조르(Uche Anizor)는 Overcoming Apathy(무관심 극복하기)에서 현대인들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들에는 미지근하다”라고 주장한다. 무관심이 반드시 하루 종일 이어지는 방향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다. 아니조르는 수도승인 존 캐시안(John Cassian)의 말을 인용하여 무관심은 “가장 중요한 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불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문화가 얼마나 무관심에 깊이 빠져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조르는 시트콤 Seinfeld를 사례로 든다. 아니조르 역시 90년대 시트콤의 팬이었지만, 이 시트콤은 “크고 의미 있는 일(예: 결혼, 가족, 종교, 사회적 관심, 심지어 홀로코스트)에 대한 무관심과 삶의 일상적인 사소한

일(예: 좋은 주차 공간,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주는 성가심, 오락기에서 높은 점수 받기)에 집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우리는 오늘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인필드 사회의 시민이다.”

사인필드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은 내용이 아니라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이다. 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대상을 더 우선시하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는 우리는 조만간 그 차이조차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켈리의 언어를 빌리자면, 무관심한 문화가 양산하는 시민은 고차원적인 의미에서는 조금도 활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행, 축구, 골프, 오락기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전능하신 주님은 이제 부차적인 주제로 전락한다.

영적 무관심이 교회를 침범하는 지금, 교회 지도자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우리의 제자도 들을 제대로 예방하고 있는가이다. 수백만 명이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치료제: 예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잔소리가 아니다. 데이비스와 그레이엄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를 이탈한 복음주의자는 가톨릭이나 주류 교회의 교회 이탈 교인들에 비해서 정통 교리를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교회를 이탈한 복음주의자의 신앙은 아직도 교회에 다니는 복음주의자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교회를 이탈한 복음주의자에게 부족한 건 교리가 아니라 점을 시사한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다. 즉, 무관심은 부족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게 과연 진리인가에 대한 확신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팀 켈리는 설교에서 초기 목회 시절 버지니아 시골에서 상담했던 한 어린 소녀에 관해서 들려준다. 그녀는 영적으로 펍 우울한 상태였는데, 켈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즉 어떻게 그녀를 용서하셨고, 당신의 피로 그녀를 사셨으

며, 또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증하셨는지 일깨워 줌으로써 그녀를 격려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다. “예,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또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 다 압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에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켈리는 그녀의 영적 경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잘 생긴 남학생이 주는 관심 또는 무관심이 그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격려였고, 더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자 자기 가치를 느끼게 하는 원천이었다.”

그 소녀에게 부족한 것은 복음이 그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대한 감각적 인식이었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알고 있는 신앙 교리를 마음의 갈망과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결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일 예배, 주중 소그룹, 매일의 묵상 등 다양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긴다. 무심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회복하려면 그들을 찾아들이기 위한 “정문”을 여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다시 새어나가지 않도록 “뒷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분에게 맞춰야 한다.

기독교를 사람들의 입맛에 더 맞게 맞추려고 노력했던 20세기 주류 교회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들처럼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교회 이탈 경향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날 만연한 무관심 문화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대응적 실천을 오히려 두 배로 늘려야 한다. 더 많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더 큰 만족을 맛볼 것이다. 복음만이 제공하는 고차원적 의미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주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눅 14:26).

by Glenn Wishnew, TGC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예배에서 김도일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예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사랑과 충성으로 감당하자”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창립 35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8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김도일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

심과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있음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로 믿을 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의 삶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주님은 오늘도 믿는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갈보리장로교회 성도들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능한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한없이 열려있는 믿는 자들이 되어 세상에 대한 무관심과 무능력에서 벗어나 주님이 우리교회에 맡긴 사명을 사랑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불길에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 주님과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며 다른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 한다”고 말했다.

김순우 목사 인도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1시 예배는 이병환 집사가 기도했으며 호산나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도일 목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교회로’(막 9:14-2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모든 성도들이 결단의 기도를 드린 뒤 김도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불붙기 시작하는 ‘아동보호 주민발의 청원서’ 서명운동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를 위한 주민발의 청원서 서명운동이 남가주 한인교회와 한인마켓 등지에서 불이 붙고 있다. 서명을 위한 부스가 교회마다 설치되고 부에나팍 시온마켓, LA 김스 전기 등에도 부스가 설치되어 서명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어지고 있다. 매주 부스를 설치해서 서명운

동을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2월 25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노창수 목사),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나선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충현선교회(국순권 목사),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갈보리선교회(심상은 목사),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주님세운

교회(박성규 목사) 등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또한 얼바인 디사이플교회(고현중 목사)에서는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를 초청해 서명유와 방법에 관해서 청취하고 교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물품 거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가주 전체적으로 70만 명이 목적이데 한인사회에서는 7만 명을 서명목표로 삼고 있다. 이 서명운동을 통해 법안이 성사되고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다.

이번 서명운동에 관한 문은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실행위원장 강순영 목사(310-995-3936)에게 하면 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 서명부스앞에 교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강태광 목사)



# 동부교계 기사관

## 퀸즈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 드려

### “첫날부터 이제까지 항상 함께 하신 그분, 예수님”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 후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설립 50주년 기념예배가 2월25일(주일) 오후 4시 퀸즈 장로교회 모든 다민족 성도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드려졌다. 김성국 목사 인도로 시작된

50주년 회년 감사예배는 정성호 장로 기도와 송요한 목사(러시아어 예배부) 성경봉독,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빌립보서 1:3-6)라는 주제로 “성전 건축에도 처음과 끝이 있듯이 지난 50년에 첫출발이 있었고, 이제 5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으며 앞으로 더 전진하며 나아갈 시간이 됐다. 우리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항상 곁에서 바라봐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며 항상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글로리아 싱어즈의 화답찬양 후 진행된 은퇴식에서 시무장로 김수산 장로, 이명옥 전도사를 비롯해, 시무관수집사, 시무관사 은퇴와 명예관사 추대패 수여, 장미는 사모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김수산 장로의 답사와 허경화 장로의 격려사, 첸위지 목사(중국어 예배부)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김광중 선교사(러시아 선교), 이일훈, 박수영 선교사(캄보디아 선교), 정길표 정경애 평신도 선교사(캐나다 선교)와 퀸즈장로교회에서 지휘를 담당했던 이기선 교수의 축하영상 메시지가 전해졌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성도들과 나눴다. 이어 성경문답서 시상, 전도 시상(전소영 집사 수상) 후 모든 성도가 다함께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찬양한 후 김도현 목사(영어예배부)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퀸즈장로교회는 1973년 고장영춘 목사가 브루클린에서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돼, 1974년 퀸즈 플라싱에 60여명이 모여 설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1981년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렸으며 1983년 설립 9주년 및 입당감사예배를 드렸다. 1987년에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배출해 내고 있으며 1992년에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를 통한 문서선교 사역을 시작하며 미 동부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개혁주의 교회로 성장해왔다.

김성국 담임목사는 2013년 퀸즈장로교회 3대 목사로 취임하여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영어예배는 물론 2015년에는 중국어 예배부, 2016년에 러시아어 예배부를 설립하며 다민족사역과 다음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충실히 실천해 왔으며 그 결실로 2019년에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김재상 기자)

**디모데목회훈련원, 목회자 세미나**  
디모데목회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은 3월 4일(월)부터 3월 5일(화)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담임 오건 목사)에서 다음 세대에 교회를 섬길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교회 담임목사, 교회 개척 혹은 준비 중인 목회자, 개척교회 사역 부목사 및 전도사이다.  
▲ 문의: 267-481-2111/732-322-3453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 제3회 정기총회**  
뉴욕한인교역자연합회(회장 이재덕 목사)는 3월 8일(금)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제 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 문의: 917-345-4700

**뉴욕실버선교회, 선교음악제**  
뉴욕실버선교회 창립 20주년 4인4색(최미, 최명자, 손영진, 송정미) 선교음악제가 3월 10일(주일) 4시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개최한다.  
▲ 문의: 917-963-9356, 646-220-8222

**제2차 강소교회 세미나**  
강소교회 세우기 국제본부는 5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안나산 기도원(원장 김영창 목사)에서 제2차 강소교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상은 강하고 순결한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담임목사 및 사모, 선교사 30분을 초청한다. 등록은 3월 31일(주일) 까지이다. 등록비, 숙박 및 식비는 일체 무료이다.  
▲ 문의: 301-874-2984



뉴욕목사회, 목회자와 지도자 중독 세미나 사진

## 뉴욕목사회, 목회자와 지도자 중독 세미나

### “교회에서 중독자에 대한 섬김이 가장 필요해”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2월 21일(수)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에서 김도형 목사(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를 강사로 초청하여 목회자와 지도자 중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도형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세미나는 팬데믹 이후 교회 회복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용걸목사의 강의와 영생장로교회 전도 왕 우장환 장로의 전도특강, 새생명훈련팀(김요셉 장로, 노하나, 이해숙 집사)의 전도훈련으로 이어졌다. 박태규 목사는 “이용걸 목사님은 40년간 목회하신 후 은퇴 후에도 강의 및 지원을 통해 후

배들과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이용걸 목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팬데믹 이후 어려운 이때일수록 주의 피로 사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다시 세워지면 나라와 지역사회가 다시 회복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우장환 장로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개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도수첩을 나누어 주며 “성공적인 전도는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는 세미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양한마리 베타어와 그의 저서인 ‘레위기강해 설교집’을 선물로 전달했다.

디모데목회훈련원은 3월 4일(월)부터 5일(화) 버지니아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오건 목사)에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하며 문의는 201-954-1193으로 하면 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홍현숙 기자)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2월 21일(수)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에서 김도형 목사(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를 강사로 초청하여 목회자와 지도자 중독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성원 목사(더나눔하우스)의 기도와 인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중독자들을 위한 섬김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독에 대한 인식이 목회자들에게 중요함을 시사했다. 중독에 관한 사역을 35년째 이어오고 있는 김도형목사는 “중독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소자 중에 소자이고 강도 만나 자 중에 강도 만난 자들이다. 중독자들은 병원 치료와 상담만으로는 영원 구원이 되지 않는다.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뿐”이라고 강조하며 “교회에서 중독자에 대한 섬김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중독 문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섬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오병이 어로 먹은 것을 충족해 주었을 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상처받은 자를 만나주었을 때 변화되었다.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했을 때 그녀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이를 볼 때 목회는 상담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중독상담과 목회를 하면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독 치료를 위해 먼저 가족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그 후에 회개 시키고 변화시키며, 협력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 뉴욕교협, 목사·교역자·교회직분자 세미나

### “축도로 예배가 시작되는 삶의 예배자”

뉴욕교협(회장 박태규 목사)이 주최한 ‘목사·교역자·교회직분자 세미나’가 ‘예배와 전도’의 주제로 2월 26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김원기 목사 시무)에서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태규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세미나는 팬데믹 이후 교회 회복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용걸목사의 강의와 영생장로교회 전도 왕 우장환 장로의 전도특강, 새생명훈련팀(김요셉 장로, 노하나, 이해숙 집사)의 전도훈련으로 이어졌다. 박태규 목사는 “이용걸 목사님은 40년간 목회하신 후 은퇴 후에도 강의 및 지원을 통해 후

배들과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이용걸 목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팬데믹 이후 어려운 이때일수록 주의 피로 사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가 다시 세워지면 나라와 지역사회가 다시 회복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우장환 장로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개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도수첩을 나누어 주며 “성공적인 전도는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목사(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는 세미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양한마리 베타어와 그의 저서인 ‘레위기강해 설교집’을 선물로 전달했다.

디모데목회훈련원은 3월 4일(월)부터 5일(화) 버지니아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오건 목사)에서 목회자세미나를 개최하며 문의는 201-954-1193으로 하면 된다.  
(정리: 김재상 기자) (홍현숙 기자)

(정리: 김재상 기자) (홍현숙 기자)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신년모임과 단장 취임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제 37기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 사진

## 제 37기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

### “저녁에 지는 선셋 더 아름다워”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 제 37기 뉴욕실버미션학교 개강예배가 2월 26일(월) 오후 7시30분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에서 열렸다.

김정열 목사(훈련원장) 인도로 시작된 제 37기 개강예배는 기도 최윤섭 목사(이사), 찬양 뉴욕실버미션합창단, 설교 이지용 목사(이사)로 진행됐다.

이지용 목사(뉴욕갯세마네교회, 이사)는 “다시 웃다 (창 18:1-15)”라는 제목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첫 번째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 믿음 없는 웃음이었지만 두 번째 웃음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웃음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다시 웃을 때에는 기쁨으로 웃게 하실 줄 믿고 남은 생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열 목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아침에 뜨는 해도 좋지

만 저녁에 지는 선셋이 더 아름답고 찬란하다. 실버선교는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선셋이다. 이를 통해 오대양육대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큰 소망이 되니 시간 시간마다 은혜와 기쁨과 감동과 풀림을 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기 목사(이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다. 실버선교를 지원한 10명의 신입생을 축하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박헌영 목사(이사) 축도로 마쳤다.

제 37기 뉴욕실버미션학교는 2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주간 진행되며 이번 단기선교는 5월 6일부터 11일까지 과테말라로 갈 예정이다.

뉴욕 실버(시니어) 미션에 관한 문의는 훈련원장 김경일 목사(917-963-9356), 사무총장 이형근 장로(646-220-8222)에게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주님의영광교회 부흥집회에서 황성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주님의영광교회 부흥집회... '교회는 이긴다' "교회가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황성은 목사(오메가교회 담임) 부흥집회를 17일(토)부터 18일(주일)까지 '교회는 이긴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18일(주일) 오전 8시에 열린 마지막 날 집회는 최대용 장로가 기도했으며 시온찬양대 찬양이 있던 후 황성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수 1:6-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성은 목사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리더로 인정할 수 있을까?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백성들을 가지고 가나안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을 것"이라 말하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 좋은 스펙이 있었다. 첫째 모세라는 탁월한 멘토가 있었다. 둘째 체계적인 신앙이 있었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셋째 전문성이 있었다. 넷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바른태도가 있는 것은 성숙함이 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지도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들을 볼 때 과몰입하지 않게 되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다. 교회가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 강조하며 말씀을 마쳤다. 이어 합심기도 하는 시간을 가진 후 황성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제 18차 저자 세미나 성향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성취의 전략은 하나님의 언약"

'성경 빅 픽처를 보라!'(저자 김인식 목사) 저자 세미나가 2월26일(월)과 27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또감 사선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열렸다.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 운동 공동대표)의 기도로 시작된 첫날 세미나에서 김인식 목사는 성경해석의 중요성을 제시한 뒤 "우리는 성경해석을 바로 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문자적 해석,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으로 대부분 자연스럽게 해석 되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 영적이나 상징적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전은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비전을 가질 때 방향이 정해진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의 결말은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인 새 예루살렘에 집중한다. 결말을 아는 자는 비전을 품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목사는 첫 날 강의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노동자'의 주제로 창조부터 언약과 성취, 이스라엘 건국과 예루살렘 회복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스터플랜 진행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자"고 강권했다. 한편 오후 시간을 통해 김운자 사모의 간증이 있었으며 임윤택 박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둘째날(화)은 '대체신학과 회복신학',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로 강의했다.

김인식 목사의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세미나는 포항기쁨의교회에서 지난 2021년 시작했다. 당시 목회자세미나로 하게 되었는데 강의 후 "저자세미나로 세미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로 저자세미나로 진행해 오고 있다. 2022년 10곳(이스라엘, 브라질, 몽골 등), 2023년 7곳(그중 교회는 2곳)에서 세미나를 했으며 올 3월 이스라엘, 4월 버지니아에서 세미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818)825-1764, glovic(카톡 ID)로 문의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가 진행되는 모습. 원내는 강의 하고 있는 김인식 목사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임직식에서 임직자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임직식 '바른 교회관, 바른 은사 개발, 진실 된 기도'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담임 이육주 목사) 창립 20주년 기념 및 안수집사 임직식 및 권사 취임식이 지난 18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육주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임직식은 이정석 장로가 기도했으며 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날 박성진 목사(전 KPCA LA노회장, 나성장로교회 담임)가 '선한청지기(벧전 4:7-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진 목사는 "선한청지기의 3가지 사명이 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라며 "첫 번째 교회관이 똑바로 서있어야 한다. 주인의식과 협동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두 번째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받은 재능과 영적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기도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 진실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내게 주신 달란트와 영적은사를 잘 개발하고 사용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안수집사 임직식 및 권사 취임식은 임직자와 성도 선서, 안수 및 악수례, 공포, 임직패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황대선 목사(KPCA LA 노회장)와 김바나바 목사(윈즈한인교회 담임)의 영상 축하메시지와 이날 임직받은 자들의 간증이 있었다. 김진호 안수집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다. 나의 삶이 모든 것에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 소원 한다"고 말했으며 이승호 안수집사는 "안디옥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가꿔나가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리고 홍기수 안수집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힘써 앞으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어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안디옥교회 교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난숙 권사와 정순남 명예권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이육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 서부교계 게시판

#### 은혜한인교회 왕의 재정 부흥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네 주인이 누구냐?'라는 주제로 왕의 재정 부흥회를 3월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김미진 간사(NCMN 대표)이다. ▲ 문의: (714)446-1000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기도회가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주최로 3월3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한미연합기도회의 강사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이다. ▲ 문의: (323)913-4499, (213)384-5232

#### 나성순복음교회 설립 50주년 회년감사예배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설립 50주년 회년감사예배가 3월4일(월)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설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가 맡는다. ▲ 문의: (323)913-4499

#### 주님세운교회 한국학교 학생모집

주님세운교회 한국학교(교장 김옥희)는 학생모집을 한다. 수업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12시40분부터 2시50분까지이며 수업 내용은 한글, 한국 문화와 역사, 동요, 성경이다. 모집대상은 만 4세, 유, 초, 중학교이며 등록비는 1년 \$200(교과서, 간식비 포함)이다. 개학일은 3월3일 ▲ 문의: (310)325-4020, (310)533-7377

#### 1만 킬로미터 저자 이지성 작가 초청 강연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3월 7일(목) 오후 7시 "1만 킬로미터"의 저자 이지성 작가를 초청해서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탈북자 선교에 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 문의: (213)384-5232

#### 나성영락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창립 51주년 기념예배를 3월3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는 은퇴 및 임직식을 갖는다. ▲ 문의: (323)227-1400

#### 찬양선교음악회

LA남성선교합창단(지휘 원영진) 찬양선교음악회가 3월3일(주일) 오후 5시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213)351-9975

#### 달라스영락장로교회 강찬 러브 투게더 찬양집회

달라스영락장로교회(담임 명치호 목사)는 강찬 러브 투게더 찬양집회를 3월6일(수)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972)425-5400



사진위는 지난 2023년에 열렸던 태국 치앙라이 연합수양회 단체사진, 사진 아래는 수양회 강사로 참여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정하 목사

### 행복한교회, 일일식당 연다 태국 치앙라이 청소년 수양회 후원을 위해

행복한교회(담임 전정하 목사)는 교회설립 17주년을 맞아 염소탕 전문 식당인 한미정과 함께 태국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일일식당을 연다. 행복한교회는 지난 2023년 4월 태국에서 약 50여명의 청소년들을 수양회로 섬기게 되었고 그 후 태국 치앙라이 반다윗 교회의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찬양예배를 드러왔다. 그러던 중 제2회 기독교청소년 수양회를 오는 4월 8일(월)부터 11일(목)에 치앙라이에 있는 월드비전 선교센터에서 열게 되었고 본 교회 담임인 전정하 목사가 주강사로 섬기게 됐다. 전정하 목사는 "현재 치앙라이에는 연합수양회를 위해 태국 북쪽지역에 있는 약 120명의 기독교 청소년들이 연합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 열리는 일일식당을 기쁨

(박준호 기자)



세라 김 사모가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동참하여 성전환 등 악법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려고 강조하고 있다

### 은혜한인교회 금요성령집회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어"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23일(금) 오후 7시30분 열린 금요성령집회에서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루며 땅 끝까지(로 12:2)'라는 제목으로 세라 김 사모(TVNext 공동대표)가 말씀을 전했다. 세라 김 사모는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법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은 전도이며 영혼구원이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일"이라며 "공립학교에서의 세뇌와 회사의 방침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전도의 대상이 우리 자녀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말씀이 사라지면 무법지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김 사모는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며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도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창조질서이다. 이는 목숨을 바쳐서 지켜

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때가 악하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아이들은 아이답게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그리고 여자 아이는 여자아이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동성애, 성전환 등의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김세라 사모는 "4월13일까지 해야 할 서명운동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순종의 행위이다. 그리고 11월 본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 순종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질서를 순종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 “침체된 교회 일으키기 위해 신학의 본질을 다시 세운다”

백석대, 27일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개소 감사예배 드려

백석대(총장 장종현)가 27일 충청남도 천안 백석대 본부동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연구소) 개소 감사예배를 드렸다. 백석대는 2003년 학교 설립자 장종현 총장의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에 대한 신학 역사적 논쟁을 정리하기 위

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에서는 설립 정신 구현을 위한 정체성 강화 방안과 교직원 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학부와 대학원 학생자치단체 임원 대상 학교 비전 및 정체성 교육, 대학원생 집중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소 소장은 주도홍 전 백

석대 대학원 부총장이 맡았다. 연구위원으로는 조병하 이은선 백석대 교수를 위촉했다. 주 소장은 “사변화된 신학으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약함으로 신학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백석대가 21세기 역사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며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장종현 총장은 “16세기 종교를 살피면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있었고 명제가 있었다”며 “연구소를 통해 영적으로 침체한 현대 교회에 ‘21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2003년 10월 25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 예배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 다루는 학문인 만큼 신앙적 실천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이단포교 막는 최전방 수비수 될 것” 교리 비교하며 열공

예장통합 이단상담사 교육 가보니

“악영향을 끼치는 이단·사이비는 대부분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이합니다. 특히 해석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파고드는데 주로 비유로 말씀을 전하거나 기성교회 언어를 교묘히 섞어 진실을 호도합니다.”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이단들의 성경 해석’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선 천세종 새장조교회 목사가 이같이 말하며 한국교계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 등의 교리 문제점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전국에서는 30여명의 목회자는 저마다 교재에 밑줄을 그어가며 수험생처럼 강의에 빠져드는 모습이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

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위원장 이철웅 목사)가 마련한 ‘108회기 이단 전문 상담사 교육’(사진) 자리에서다.

교육은 이단·사이비에 빠진 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예년과 달리 이번부터 4회 수강을 마쳐야 수료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강화됐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이단상담사가 되는데 노회와 교회에서 ‘이단 교리 반증 상담’을 하며 이단들의 포교를 막는 최전방 수비수 역할을 맡는다. 반증 상담이란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사례를 들어 이단 교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교육은 기존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교리를 학습하는 걸 넘어 장로교 교리와 비교하는 등 반증교육 실무에 방점을 찍었다. 이단이 주로 왜곡하는 ‘교회론’에서 “우리 (이단)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증 상담에선 성경은 공교회의 역할을 중시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통한 구원의 무용론을 강조하는 식이다. 이날 이상은 서울장신대 조직신학 교수는 ‘이단 사이비 식별 교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 교수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던 초대교회 때도 이단은 있었다”며 “예장통합의 경우 교단 헌법과 교리 전통을 사도신경,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등에 두고 있다. 이단을 판정하면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전통 교단의 교리 전통임을 잊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정동 교리가 이단·사이비의 잘못된 교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의미다.

교육생들은 ‘이단 피해자를 보듬고 싶다’거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원해 참석했다. 전남에서 온 박백남 임마누엘영광교회 회 목사는 “이단 문제는 내가 평생도이던 10여년 전에도 교회에 늘 있었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상담을 넘어 예방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처럼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쾌하게 전하는 걸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성교육도서 유해성 없다” 편향성 자초한 간행물윤리위

66권 중 11권 심의, 인체 특정부위, 성행위, 동성애 내용 수록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가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된 유해 도서들을 심의하면서 심의도서 모두 “유해성이 없다”고 결정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간윤위는 해당 도서들에 대한 심의 거부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간윤위의 행태를 두고 특정 성향에 치우친 편파적 심의라는 지적이 학부모·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된다.

27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간윤위는 최근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모·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유해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55권은 오는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한다고 간윤위는 밝혔다.

간윤위의 심의 결과를 두고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심의가 이뤄진 성교육 도서들은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내용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인체의 특정 부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물

론 각종 성행위 및 동성애와 관련한 묘사, 그림들도 담겨 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교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명화 덕은한강초 교사는 “통상적으로 ‘음란물’은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 도발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및 불쾌감을 갖게 하는 그림이나 영상을 말한다”면서 “문제의 도서들은 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당연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개탄했다. 최윤경 부천도당중학교 교사는 “청소년들은 18세 이후 전두엽 발달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단계를 무시한 채 해당 도서들을 활용한 노골적인 성 교육은 안 좋은 자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론했다.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도서들보다 수위가 낮은데도 유해 도서로 결정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간윤위가 특정 성향에 치우쳐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교회, 정신질환 성도 바리보는 시선 바꿔야 해”

라이프호프, 26일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정신질환 이해’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한 정신질환 돌봄 지침서가 나왔다.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열린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정신질환 이해’ 책자 발간 세미나에서다.

세미나는 라이프호프기독교 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 교수)가 새종은의사, 대한기독교신과사회,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라이프호프는 목회자와 성도를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라이프호프는 목회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들과 자살 유가족을 이해하고 환경에 맞

는 맞춤 목회를 돕기 위해 1년 6개월간 제작에 몰두했다. 책자에는 ‘성서가 말하는 정신질환의 이해’와 우울증·조울증·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이 소개됐다. 또 ‘정신질환 환우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 방법’에 대한 지침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큐앤에이(Q&A) 등도 포함돼있다. 안해용 라이프호프 사무국장은 “교회 안에 올바른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책자를 만들게 됐다”며 “정신질환 환우에게 약을 끊고 기도만 하자는 목회자와 성경을 잘 보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잘못된 신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적인 세계와 비종교적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선한 행위이고, 의사를 찾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로 보는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행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한국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이 27.8%에 이른다. 한국교회 교인 중에 정신장애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인은 약 278만명으로 추산된다. 교인 4명 중에 1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자살률은 일반인보다 8배나 높다. 책자의 공동저자인 고석한 선교사는 ‘성서가 말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의 주제로 한 발제에서 “성경에서 죄의 결과에 따른 저주로 피부병·정신병을 얻게 됐다는 구절이 나온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구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당시 시대적·상황적 배경을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상담실장인 임정아 박사는 “목회자들이 환우를 돌보기에 앞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신질환은 암·당뇨병 같은 의학적 질병이고 인체는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앙적 영역과 의학적 영역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 꼬리 감추는 부산 신천지...

“발각된 위장시설 37곳 폐쇄후 13곳 새로 구축”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코로나19 중 정체가 밝혀진 기존 위장 시설을 폐쇄한 뒤 또 다른 위장 시설을 교묘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꼬리 자르기 후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는 셈이다. 이단 전문가들은 모락 포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교회와 교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소(이단상담소·소장 탁지일 교수)는 26일 부산 수영구 수영로교회 선교센터 엘레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이단상담소가 발표한 ‘2024년 부산지역 신천지 거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천지는 부산의 신천지 본부와 미혹 장소, 위장교회·문화센터 46곳 중 80%에 달하는 37곳을 정리했지만 13곳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모락 포교는 유지하고 있다.

조하나 이단상담소 실장은 “현재 부산성시화이단상담소에서 파악한 신천지 위장교회 등은 모두 22곳”이라며 “물론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신천지가 80%를 없앤 뒤 새로운 장소 13개를 마련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춘 채 진행하던 모락 포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신천지의 위장 시설 수가 줄어든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각종 시설이 드러나면서 예전만큼 포교 대상자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신천지 인터넷신문선교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용해 비대면 포교를 시작한 뒤 물리적 공간을 축소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탁지일 소장은 신천지의 이 같은 거점 변화가 부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봤다. 탁 소장은 “신천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구 신천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 거점 시설을 공개한 것에 따른 결과로 위장과 거짓말을 기반으로 한 소위 신천지의 모락 포교를 기존 시설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새 시설을 찾는 것이지 포교 축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이만희’로 발생 내부 갈등과 지도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위기가감에 변신을 요구받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신입 신도와 기존 신도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조직 이미지를 세력하기 위해 새로운 거점을 기반으로 한 공개적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온·오프라인에서 이를 노출시키고 공유해야 교회와 사회의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성시화이단상담소는 지금까지 파악된 신천지 시설을 새롭게 정리해 지역의 1800여 곳 교회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부산의 각 대학 캠퍼스 사역자를 중심으로 한 ‘이단 예방 대책 세미나’도 연다.



###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5)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은사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모든 영적인 은사들은 받아서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은사들을 주셨으며(고전 12:7),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신뢰받고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벧전 4:10,11).

\* 기도의 은사나 이와 유사한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은사들은 사람의 영혼 속에 숨관이나 기능처럼 심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될 때 증가되고 강화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기도의 은사들을 소멸하고 말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자신이 은혜로 배부신 것을 무시한 사람에게서 다시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사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역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주신 은사를 신실하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라는 것은 복음적인 은사들에 관한 영원한 법칙이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엡 4:7)라고 말한다.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50)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우리 교회 선교, 기도로 시작하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A선교사 부부가 교회에 부탁드리는 말을 종종 들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기도해주세요라는 기도편지를 선교지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종종 이 기도 요청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기도 요청은 “기도해보겠습니다”라는 부드럽게 거절하는 뜻으로 반응을 받게 된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모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기독교 선교에서 기도의 역할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다면적이며, 선교 사명을 추진시키는 동력이자 모든 선교 활동의 기초가 되는 영적 훈련이다. 기도는 신적인 안내와 개입을 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신자들 사이의 단합을 증진시키며, 선교지에서의 영적 거부를 대항하는 방법입니다.

#### 1.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기

선교 사역의 모든 단계에서, 계획 및 준비 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하나님의 지지를 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선교지를 선택하고, 전략을 개발하며,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도에 의존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전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을 구했듯이(사도행전 13:2-3), 현대 선교사들도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지침을 구하기 위해 기도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교에 발을 내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듯이 깨끗한 심령에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지도와 신앙공동체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감동을 확인해줄 수 있는 선배들이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함께 기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송 교회와 선교사는 함께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건강한 동역 관계입니다. 개인 선교사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지만, 교회와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관계는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의 동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빌립 보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빌립보고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 2. 열린 마음을 위한 대속 기도

선교사역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 지역과 민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은 성령이 미리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접근하려는 사 람들이나 공동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지역과 개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사도행전 16:14에서 리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3.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도

선교는 종종 강력한 영적 반

대를 만나며, 이를 대항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과 그들의 기도 동역자들은 보호와 악에서의 해방,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하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6:12).” 강한 영적 투쟁이 알려진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집중 기도 캠페인을 벌이며, 영적 전투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강력한 타종교들이 자리잡고 있는 모슬렘지역, 힌두지역, 불교지역들은 이런 기도가 절실한 곳입니다.

#### 4. 단합과 교제를 이루는 기도

함께 하는 기도는 선교사들 사이,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교회나 공동체 사이의 단합과 교제를 증진시킵니다. 기도를 통해 전 세계의 신자들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최전선에서 섬기는 이들을 지원하고, 글로벌 선교가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나 기도 체인을 주최하여 개인과 교회가 함께 모여 특정 선교 프로젝트와 팀을 위해 기도하며, 단합과 공동의 목적감을 증진시킵니다. 라마단 기간동안 역 라마단기도 프로그램들은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 5. 공급과 지원을 위한 기도

선교사들은 그들의 물질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도에 의존합니다. 이는 재정 지원, 건강, 안전, 그리고

고 도전을 통해 인내할 힘을 포함합니다. 선교사들이 뉴스레터를 통해 구체적인 기도 요청을 보내면 교회와 동역자들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피드백이 적을 때에 기도하는 교회나 개인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선교사는 자신이 부탁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지속적인 기도 체인이 이어지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특별한 공급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존의 문화가 만들어져 갑니다.

#### 6. 감사와 찬양의 기도

선교에서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당연히 포함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풍성하게 채우심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은 선교에서의 기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선교지에서의 간증과 찬양 보고를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지원을 통해 이루고 계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 우리가 교회에 적용할 부분은

공예배에서의 선교를 위한 기도 포함: 주일 예배에서 대표자들이 구체적인 선교사와 사역을 위한 기도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대표기도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온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넘어 관심을 가지신 일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전 교회적 선교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담임목사의 목회 기도에서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됩니다.

기도팀을 만듭니다: 특정 선교 프로젝트,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를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전담 기도팀을 구성합니다. 교회의 조직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구역, 순, 다락방 등으로 나뉜 교회 조직들이 선교지역이나 선교사들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

이 가장 일반적인 기도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선교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역장이나 그 그룹의 리더가 선교적인 관심이 부족할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께하게 되면 그 관심은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을 선교지역, 선교사역이나 선교사와 연결하여 기도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임목사의 선교적 관심이 분명하다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을 선교 중심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갈 때에 교회는 놀라운 선교적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특별한 지역이나 특수 영역을 위한 기도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으나, 전 교회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내서: 다양한 선교 노력과 관련된 기도 필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도 안내서를 만들고 배포합니다. 전 교회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아주 유익한 방법입니다.

기도 걷기: 지역 사회에서, 현지와 선교지 모두에서 기도 걷기를 조직하여, 복음이 전해질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주한인교회들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도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특별전도 대상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여러고 성을 돌듯 기도하며 걷는 것도 참여자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있는 동원 방법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에서 기도 걷기를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4/7 기도 체인: 전 세계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24/7 기도 체인이나 가상 기도실을 시작하여 선교를 위한 연속적인 기도 지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기 기도회: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회를 조직하고 운영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기도회는 많은 교인들에게 참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기 기도회는 인도하는 방향과 기도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기도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새벽기도회 시간이나 저녁 기도 시간을 선호합니다. 중보 기도에 관심을 가진 중보기도 사명자들이 모이는 기도 시간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 중보기도 그룹은 긴급 중보기도의 필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정기적인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의 기도제목 뿐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기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회의 인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정기적인 모임에서는 시간 배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시간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보다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 말씀, 기도의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의 모임에서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찬양이 꼭 조 있는 기도이다”라고 하지만 전체 시간의 배분에서 찬양 시간이 1/3 이상이 된다고 하면 찬양집회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찬양 시간은 1/4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설교시간 역시 1/4을 넘지 않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절반이상 가지도록 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체적이고 진정한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수양회: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에 초점을 맞춘 기도 수양회를 주최하여, 가르침, 예배,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위한 헌신된 기도 시간을 제공합니다.

선교에서 기도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선교는 시작되고, 유지되며, 성취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기도생활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가 활성화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들의 삶과 선교지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dr.yongcho@gmail.com

###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2)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 순전한 기독교(2)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는 현대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신학적 흐름을 포괄하는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어 범 기독교적인 지지를 받았다. 영미 복음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았고,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계, 나아가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 (Eastern Orthodox Church), 한 걸음 더 나가 모르몬교까지도 루이스와 그의 <순전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순전한 기독교>가 이렇게 다양한 기독교 그룹의 지지를 받는 것은 이유는 많다. 우선 루이스가 옥스퍼드 시절에 만난 오언 바필

드 영향이다. 오언 바필드는 루이스에게 ‘연대기적 속물근성(Chronicle Snobbery)’을 설명했고 루이스는 오언 바필드의 생각을 마음에 담았다. 여기서 연대기적 속물근성은 최선의 것이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루이스는 중요한 진리는 현대의 것보다 전통을 통해 세워진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가 다양한 그룹의 지지를 받고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는 이유는 순전한 기독교가 영원한 진리에 집중하고 불변의 진리를 추구한 것이 역사적으로 대중의 지지와 인기

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가 영원한 진리를 추구한 것은 루이스의 개인 성향이 큰 영향을 끼쳤다. 루이스는 원래 논쟁적인 정치 사회적 사안들을 싫어했다. 그는 신문을 잘 읽지 않았던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루이스는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논쟁적인 사안들과 자신이 전하는 진리와 연결되는 것을 애써 피하려 했었고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에 집중했다. 루이스는 당대와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못했던 정치적 유희를 피했다. 루이스는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당파적 정지문제에 몰두함으로써 기독교 진리를 외면했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당파적 정치 논리나 사회적 이슈를 기독교의 진리와 연결시키지 않도록 노력했다.

루이스가 영원하고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에 집중하게 된 것은 그의 당시 상황이었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탄생 배경이 전지 상황이었다. 아울러 루이스가 전국 시민을 대상으로 방송 강연을 하는 연사로 자신의 원고를 정리했다. 그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국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진리로 위로하기를 원했다. 루이스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

한 까닭에 기독교의 핵심진리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는 이 진리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편지를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능력과 재주로 폭넓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도 갖추었다. 루이스는 개발한 세 가지 통로로 대중들과 소통하였다.

그 첫째가 인문학이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통해 문학과 고전을 탐독했다. 문학적 소양을 갖추었던 아버지 영향이다. 그는 또 고전 문학에 열중했다. 대학에서 중세 문학을 전공했다.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그는 인생의 통찰력을 갖게 되었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발견했다.

루이스가 폭넓은 대중을 만나는 두 번째 통로는 그의 문학 일련어인 잉클링스(Inklings)를 통한 일이다. 잉클링스는 루이스가 옥스퍼드에서 친구였던 톨킨(존 로널드 루엘 톨킨/John Ronald Reuel Tolkien) 교수와 더불어 이끌었던 문학 클럽이다. 그들은 치열한 문학 토론과 서로를 비평함으로써 탄탄한 논리적 구성은 물론 대중성을 점진하게 되었다.

루이스가 폭넓게 대중을 쉽게 만나게 해준 세 번째 통로는 그의

글쓰기 훈련이다. 루이스는 평생 글쓰기에 몰두했다. 루이스는 평생 4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평생 독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루이스는 편지, 문학, 신앙과 신학의 목적인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의 편지는 소논문이었다. 루이스는 다양한 상대와 편지로 소통하며 일반 시민의 관심사를 파악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기독교의 보편성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문제에 집중했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를 보편적인 인생의 문제와 연결하는데 탁월했다. 그리고 그는 대중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표현방식으로 대중을 설득했다. 그 대중과의 소통이 꽃핀 현상이 방송 강연이었고, 정리된 <순전한 기독교>로 다시 나타났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가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명 인사의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는 닉슨 대통령 법률 고문 척 폴슨 사언이다. 닉슨의 해결사였던 그는 삶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 친구 (레이 시온 사 이사장) 톰 필립스로부터 순전한 기독교를 받았다.

필립스는 폴슨에게 책을 건네며 한 장을 읽어 주었다. “가장 큰

죄”라는 장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인 죄를 고발하면서 그 악이 교만이라고 주장한다. 폴슨은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마저 그 가능성을 갇그리 잡아먹습니다.”라는 대목을 친구가 읽을 때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들의 요약으로 들렸다. 폴슨은 회심했다.

폴슨에 이어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회심한 명사는 저명한 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다. 미국국립 보건원장을 역임한 그는 기독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간 칼리교 목사의 추천으로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회심했다. 과학자인 그는 <신의 언어/The language of God>란 책을 출판해 기독교를 변증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니지와 인정, 대중의 사랑, 그리고 명사들의 회심에 결정적 기여 등으로 <순전한 기독교>는 현대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사랑받는다. 루이스가 신앙적 방향 끝에 회심한 것은 기독교 신앙을 회의하는 지식인과 과학자들에게 신뢰와 설득력을 제공한다.

Kangtg1207@gmail.com



#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 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 (눅 2:4-12) 찬 200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아주 특별한 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신다.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구유에 아기가 있을 것이 증거라고 알려 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같이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기를 보았지만 그가 구주이심을 알 수 없

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시는 주님을 알고 일하심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야 한다. 강보에 싸인 아기를 내 중심으로 보면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 화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자 (눅 2:17-19, 51) 찬 204장

목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놀랍게 들었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생각한다.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 있게 하라. 생각하여 말씀이 마음에 살아 있게 하는 것이다. 새김으로 인하여 실상이 나타나 는 것이다. 말씀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 마리아에게는 그 말의 내용이 실상으로 있는 것이다. 생각의 노동으로 인하여 형성이 되는 것이다. 듣기만 하고 새기지 않고 즉 반복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망의 생각이 나타나면 무너

진다. 사라진다. 사망의 생각이 이긴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사망의 생각이 내 마음에 항상 살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의 실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믿어진다. 누려 지게 된다.

## 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눅 2:25-32) 찬 184장

시므온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였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심을 알고 모시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아야 한다.

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한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기를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기를 보고 왕임을 알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다. 오늘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고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 아기가 구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죄의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으로 간 것이다. 죄의 감동 사망의 감동을 누리지 말라. 아기 예수님을 보고 구주이

## 목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사명 (눅 3:2-17) 찬 323장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시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지 않게 하라. 죄인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여야 한다.

죄의 중들이 영원히 형벌 받을 것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성경에 있는 주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증거하라.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하여 보냄

## 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자 (눅 3:21-22) 찬 285장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요한에게 보였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확실함과 거룩한 기쁨의 증상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라. 세례 요한은 귀로 그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

게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은 잘 듣고 믿고 누리고 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단지 지식적인 동의 정도로 읽는다고 하는 것이다. 사망의 생각의 말만 듣고 믿고 누리지 말라. 말씀대로 실상을 알고 받아 누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현재 살아 있는 말씀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 토 마귀의 등장 (눅 4:1-4) 찬 348장

마귀가 활동함을 알아야 한다.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사망의 생각에 빠져 마귀가 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다. 수시로 나에게 나타나서 유혹한다.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대화를 한 것이다. 육신의 생각이 빠지면 마귀의 뜻에 빠진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신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생각이 나를 위한 것

으로 속여서 말하기 때문이다. 사망의 생각이 나타날 때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서 생각하여야 한다.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있지 말라. 사망의 생각의 충동이 일어날 때 속히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 서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 기독교 교육 (44)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 기독교 성인사역과 주머스

성인사역이라는 맥락에서 주머스(Zoomers), 밀레니얼스(Millennials), 버스터스(Busters), 베이비부머스(Baby Boomers) 등, 여러 세대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름이라면, 주머스는 비공식적이고 익살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세대의 특성에 맞추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세대는 의사소통에 있어 독특한 취향이나 스타일이 있습니다. 취향과 스타일을 이해하면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베이비부머들이 전통적인 방법의 소통을 선호하는 반면, 밀레니얼스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에 더 잘 반응합니다.

교회가 주머스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첫번째, 먼저 소통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수용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머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구성원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영상, 스토리텔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교회의 소식과 행사와 활동을 공유해야 합니다.

두번째, 그룹의 특성에 맞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 학습방법이 다릅니다. 학습방법에 적합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면 학습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연령대와 유관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두번째, 소통에 있어 투명성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치와 사명과 목표에 대해 진솔하고 분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주머스가 고민하는 신앙, 의식, 윤리 등에 대해 진실하고 정직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 문화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각 세대는 나름대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 가치와 신념과 자세를 형성합니다. 그와 같은 차이점을 인식하므로써 각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교회가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모두가 환영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머스의 다양성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네번째, 리더십의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세대에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다릅니다. 세대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다릅니다. 세대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다릅니다. 세대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다릅니다. 세대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번째,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를 병행함으로써 예배경험에 융통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여러가지 미디어를 사용하여 기술에 능한 세대가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의 옵션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협업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룹 프로젝트 같이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세대의 관점과 소통 스타일을 이해하면 좀더 원만한 협동과 팀워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주머스를 교회생활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해주어 멘토링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머스를 지도할 수 있고, 그들이 공동체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사역에 있어 정책은 각 세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하면 각 세대가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구성원들을 돕는데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머스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고민에 대해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유관하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활용하면 좀더 개인적이고 긴밀한 세팅에서 주머스가 신앙생활에 대해 토론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세대간의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대들의 서로의 특성과 가치관을 이해하면 세대간의 소통이 원만하게 되고 관계가 돈독해 집니다. 이것은 특히 여러 세대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번째, 주머스가 비웃음이나 정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의식과 질문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대화를 장려하고 서로의 신앙여정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사역에 있어 변화에 대한 수용과 적응의 자세를 유지하고, 주머스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번째, 포용성과 형평성을 촉진합니다. 세대들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면 모든 세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환경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형평성 유지에 중요하며, 모든 세대에 공평한 정책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주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므로써 교회는 주머스를 환영하고 포용하고, 그들과 유관하고 그들에게 의미있는 사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밀레니얼스와 버스터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머 세대(Zoomer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머스라는 이름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칭하는 '부머스'라는 단어를 흉내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Z세대(Generation Z 또는 Gen Z)라고 합니다. 주머스 세대는 대개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에 태어나 디지털 시대에 성장하여 정보기술과 인터넷에 익숙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줌(Zoom)입니다. 그래서 주머스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Z세대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되는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리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앙 에세이

목마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그의 책 <주도하는 정신> (Leading Minds)에서 목마름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시대를 주도했던 리더들의 공통점은 시대의 변화를 애대개 추구하던 목마름이었습니다. 새로움을 향한 무한 질주를 떠올리게 하는 혁신의 아이콘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깊이 남는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Stay hungry, 목마름을 놓치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도 세상을 더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기에 조금의 좌절도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WEC 선교회의 창시자인 C.T. 스티드는 부유한 영국 귀족의 아들로 최고의 학문과 환경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캠프리지 7

인의 한 명으로 중국선교를 위해 떠났습니다. 훗날 건강이 악화되어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인도로, 마침내 아프리카로 선교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 식인종에게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구절 하나에 그의 심장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은 남편을 막아서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원자도 없이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갔고, 18년 동안 주님과 영혼을 위해 삶을 불태우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칠 줄 모르는 헌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끊임없는 목마름, 그 깊은 목마름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사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목말라 합니다. 목마름은 우리가 바라는 대상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것을 얻을 때는 지고한 기쁨을 누리게도 만들고, 때로는 그 목마름이 우리를 노예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도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죽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긍휼,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비참하게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거룩한 목마름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음을 걸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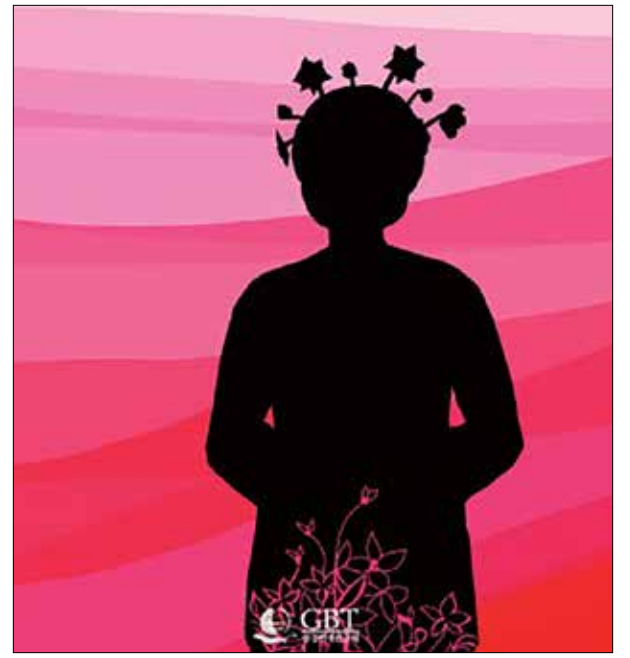
나는 무엇이 목말라 하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 향한 갈증입니까? 세상을 향한 갈증이려면 거짓된 만족에 기뻐하거나 평생 목말라 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이려면 많은 고난의 여정이 거칠지라도 점

류영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8:1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 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임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 할 때 주님은 하늘의 생수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한 그칠 줄 모르는 목마름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을 주소서. preachchrist@kcpc.org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르장 종족

▲ 인구 약 350,000명

▲ 종교 이슬람교 99.96%, 복음화율 0.04%

▲ 복음매체 신약 완역, 구약 번역 필요, 복음매체 있음

▲ 종족 프로필 전쟁에서 용감하고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산간지역에 살며 보통 커피를 재배하고 농사를 짓는다. 4개의 방언이 있다.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정령숭배에 더 가깝다. 학교가 갖추어져 있지만 일찍 결혼하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다수는 이혼하며, 후에 학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다.

▲ 기도제목

- 1. 르장어 신약 성경이 많이 읽히고 예배에서 사용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2. 구약 성경의 필요성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도록
3. 젊은이들이 제때에 교육을 받아 자신의 삶을 개발할 수 있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책 소개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구속의 은혜와 고백

미국 이민 목회자로 26년간 사역해 오고 있는 김요섭 목사(열매교회/본지 칼럼 필진)가 '삶을 산 재물로 드린 순례자의 고백'이란 부제를 단 <구속의 은혜와 고백>을 출간했다.

"그동안 사역해 오며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치유, 기적 등은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교회 개척 15주년을 기념하여 펜데믹 기간 중 미주크리스천신문에 게재된 칼럼과 열 가지 제언에 대한 설교를 묶어냈다"고 말하는 저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다.

본서는 제 1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제 2부 '삶을 산 재물로 드린 순례자의 고백'의 주제로 총 51개의 글이 수록됐다.

1부에서는 '내게 소중한 것

내려놓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항상 준비하기', '하나님의 선택 누리기'를 비롯해 총 11개의 글을 통해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에 나타난 '재앙 속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풀어 냈다. 또한 2부에서는 일상의 사역과 삶 가운데 느끼고 겪는 이야기들을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필체로 적어 미주크리스천신문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글들을 올렸다.

본서 추천의 글을 통해 김재연 목사(전 칼빈대 총장, 영생교회 담임)는 "바른 신앙과 의리, 진실하고 성실한 목회자상을 보여주는 귀한 사역자"라고 치하하며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세용 목사(반월교회 원

로/새벽만나 저자)는 "책은 바야 맛이다"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사실이다"라며 "본서는 목회예사이와 열 가지 제안을 통한 독특한 강해 같은 설교"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와 성도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창영 목사(생명의 말씀사 대표), 성종현 목사(백석대학교 교수), 김홍만 목사(사우스웨스턴개혁신학교 총장), 김상연 장로(김종합건축사무소 대표 건축사)의 추천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한남대학교 철학(BA), 총신대 목회학 석사(M.Div), 리폼드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 석사(M.A.C.E.), 커퍼넌트신학대학원 신학석사(Th.M)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1월 제일성도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의 첫발을 내 디딘 김요섭 목



사는 이후 이민목회를 시작했으며 2009년 2월 남가주리더교회(현 열매교회)를 설립하여 15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책 구입은 기독교서적센터(323-737-7699)와 기독교 인터넷 몰 갓피플(godpeople.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yosupbois@hotmail.com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동부(NY,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etc.



